



차례

- 
- 제1차시
 - 제2차시
 - 제3차시
 - 제4차시
 - 제5차시
 - 제6차시
 - 제7차시
 - 제8차시
 - 제9차시
 - 제10차시
 - 제11차시
 - 제12차시
 - 제13차시
 - 제14차시
 - 제15차시
 - 제16차시
 - 제17차시
 - 제18차시
 - 제19차시
 - 제20차시
 - 제21차시
- 

제1차시

한국어 문법론

개요 ...

* 주제

한국어 문법론

* 학습 목표

- ①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과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 ② 한국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한국어 문법의 범위와 교육의 전제
- ②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주요용어

1. 명시적 문법 교육

- 문법적인 사항을 지식으로서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암시적 문법 교육

- 문법 지식을 전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문법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법의 문법 교육을 가리킴. 언어 기능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문법 지식을 학습자가 스스로 귀납하게 한다.



학습하기

1. 한국어 문법의 성격

(1) 언어학에서 문법의 의미

① 좁은 의미의 문법

- 단어, 문장을 구성하거나 운용하는 방법
- 단어, 문장을 구성하거나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② 넓은 의미의 문법

- 단어, 문장, 소리, 대화나 이야기(담화, 텍스트) 등 말을 구성하거나 운용하는 방법
- 단어, 문장, 소리, 대화나 이야기(담화, 텍스트) 등 말을 구성하거나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③ 변형생성 문법

- 언중의 머리에 내재해 있는 언어 능력.
- 언어가 가지는 내적 구조와 규범

④ 기술 문법

- 문장 구성과 관계 되는 원리, 형태론, 통사론.
- 모든 종류의 언어를 대상으로 함.

⑤ 규범문법

- 언어에 내재한 전반적 질서.
- 한 언어 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지정된 특정 언어에 대한 문법

(2) 응용언어학에서 문법의 의미

① 언어학이나 한국어학에서의 문법

- 좁은 의미의 문법
- 연구 방법 및 결과의 수식화, 도식화, 계량화를 선호
- 언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함.

② 국어교육에서의 문법

-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포함.
- 말소리, 단어, 어휘, 문장, 의미, 이야기, 국어의 규범 모두를 대상으로 함.

③ 일반인이 말하는 문법

- 맞춤법이 틀렸을 때 “문법”이라는 단어를 언급함.

2 한국어문법론



- 표준어와 사투리를 구별할 때 “문법”이라는 단어를 언급함.
- 외국어 구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 “문법”을 언급함.
-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볼 때 “문법”을 언급함.

(3)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의미

① 전제

- 문법을 잘하는 것이 언어 사용을 잘하는 길이다.
- 한국어의 소리, 단어, 문장, 대화, 이야기 등에 대한 지식이 논리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② 음운론의 지식

- 자음과 모음의 종류
- 발음 기관의 움직임
- 한국어의 음절
- 가능한 음성 연쇄와 불가능한 음성 연쇄의 종류

③ 형태론과 통사론의 지식

- 단어 만드는 방법
- 한국어 단어의 갈래
- 한국어의 문장 구조
- 한국어의 어순
- 한국어의 문장의 종류
- 한국어의 문장의 연결 방법

④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한국어의 시간 표현
- 한국어의 높임 표현
- 한국어의 부정 표현
- 한국어의 사동 표현
- 한국어의 피동 표현
- 한국어의 양태 표현

⑤ 담화 지식

- 화자와 청자
- 상황
- 대화의 구조
- 몸짓



2. 한국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

(1) 필요성에 대한 이견

- 명시적인 문법 교육은 필요 없다.
-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문법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 의사소통 기능 향상과는 무관하게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문법은 가르쳐야 한다.

(2)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구현

-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의사소통 기능 과제에 문법 지식을 통합
- 정확하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이 기반이 되나 의사소통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의견의 합일을 본다.

(3) 결론

- 문법 교육은 필요하다.
- 문법 교육은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암시적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때때로 명시적으로 문법만 목표로 교수되어야 한다.
- 한국어 교육의 교수자는 이를 위해 한국어 문법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한국어 문법의 목표

(1) 언어의 현실적인 모습

-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을 주고받는다.
- 언어를 통하여 과제를 해결한다.
- 언어를 사용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2) 의사소통의 기능을 뛰어 넘는 언어의 역할

- 사고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힘이 된다.
- 언어에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 사고는 언어의 구조에 매여 있다.
-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활용어미, 조사 등이 흔히 언급된다.

(3) 문법 교육의 일반적 목표

-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
-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 탐구 능력을 향상한다.(소리, 단어, 문장 등 다양한 한국어 사용 현상에 대한 탐구)
-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한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4 한국어문법론



- 한국어를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태도를 기른다.
- (4)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징
- 대상이 대부분 성인이다.
 - 사고, 언어 능력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이나 습관, 태도가 모어나 제1 언어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태임.
- (5) 결론
-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 구별 필요
 -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음성, 단어, 문장, 문법 요소, 대화나 이야기와 관련된 한국어 문법 지식을 익히는 것
 - 그 방법은 암시적인 방법과 명시적인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제2차시

한국어 문법의 내용 체계

개요

* 주제

1.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 학습 목표

- ① 한국어 문법과 학교문법의 차이를 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②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한국어 문법과 학교문법의 차이
- ② 어순, 문장 확대, 높임법, 문법 형태 학습 단위 설정

주요용어

1. 어순

문장 성분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를 가리켜 어순이라고 한다. 어는 단어를 가리키고 순은 순서를 가리킨다.

2. 문장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할 때 하나의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된 최소의 단위를 문장이라 한다. 보통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어에서는 이런 것이 생략될 수 있다. 글이라면, 문장의 끝에 ‘.’, ‘?’, ‘!’ 따위의 마침표를 찍는다.



학습하기

1. 한국어 문법과 학교문법

(1) 문법의 다양한 내포

- 용례 : 보편문법, 개별 문법, 학문 문법, 이론 문법, 기술문법, 교육문법(응용문법), 규범문법, 학습자 문법, 교사 문법, 학교문법, 표준 문법

(2) 두 문법의 공통점

- 교육을 위하여 정리된 것.
- 한국어에 내재한 질서를 언어화 한 것.

(3) 두 문법의 차이점

- 학교문법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어 문법 교육의 대상은 다채롭다.
- 학교문법 교육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능력, 언어 사용 능력, 한국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한다.

2. 한국어 문법의 체계화

(1) 체계화의 원리

-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화한다.
- 언어 직관이 부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 위 두 사실을 바탕으로 원리의 단순 제시보다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
- 예시

학교문법	한국어 문법
한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한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발음의 방법 발음에 주의할 사항 외국인이 자주 하는 오류 대조 언어학적 검토의 결과

(2) 어순의 체계화

어제 그 사람과 만났다.



어제 만났다, 그 사람과.

만났다, 그 사람과 어제.

① 일반적인 서술

- 한국어의 어순은 크게 ‘주어-목적어-서술어’이다.
- 한국어의 어순은 자유롭다.

② 한국어 문법의 서술

- 한국어의 어순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바뀌고 강조해야 할 사항이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 도치 행위 자체가 강조점을 지닌다.
- 어순의 위치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사람과’는 ‘사람그과’, ‘그과사람’, ‘사람과 그’와 같은 도치는 절대 불가하다.

(3) 문장 확대의 체계화

① 일반적인 문장 확대 설명

-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분류
-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분류
- 안은문장은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설명
- 이어진문장은 대등, 종속의 연결로 설명

② 한국어 문법의 서술

- 대등, 종속의 연결 구분은, 형태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문법적 기능이나 특성의 차이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필요없음.

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 대등, 종속의 연결 구분보다 개별 연결어미의 의미와 쓰임, 그리고 통사적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함.
- 부사절은 종속절과 구분이 명료하지 않음. 용언 수식의 기능과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

예 그는 해가 지도록 기다렸다. → 해가 지도록 그는 기다렸다.

불이 나가서 어두웠다. → 어두웠다, 불이 나가서.

- 서술절은 성립 자체에 엄밀하고 깊은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토끼가 앞발이 짧다.’의 경우 서술절, 이중주어, 주제어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주어를 둘 이상 필요로 하는 형용사의 부류를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임.
-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 안은문장은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으로 설명.



(4) 높임법의 체계화

① 학교문법의 높임법

높 등급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 등급
높임	아주높임	합쇼체	해요체	두루 높임
	예시높임	하오체		
안높임	예시낮춤	하게체	해체	두루 낮춤
	아주낮춤	해라체		

② 한국어 문법의 서술

- 매우 한정된 쓰임을 보이는 하오체, 하게체의 문제
- 하오체가 쓰여야 할 곳에 합쇼체, 해라체, 해체가 쓰이고 하게체가 쓰여야 하는 상황에 해라체나 해체가 쓰임.
- 결론적으로 격식체는 합쇼체, 해라체,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로 체계화

(5) 문법 단위 설정

그 때 바람이 부는 바람에 깃대가 넘어갔다.

그 때 바람이 불어서 깃대가 넘어갔다.

그 때 바람이 불어 깃대가 넘어갔다.

① 학교문법의 서술

- 다양한 어미와 조사들이 설정되어 있으나 ‘-는 바람에’와 같은 것은 없다.

② 한국어 문법의 서술

- ‘-는 바람에’는 ‘-어’, ‘-어서’와 비슷한 뜻을 갖는다.
- ‘-는 바람에’는 관형사형 어미, ‘바람’, 조사로 되어 있으나 학교문법처럼 서술하면 뜻을 놓치게 된다.
- 복합 표현의 경우 분리하지 않고 하나를 단위로 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그 밖의 정보

① 학습자 오류 정보

- “당신”을 “you”로 착각하고 아무 데서나 쓰는 오류
- 어두자음군을 쓰는 오류

② 구체적인 문맥 정보

- 리터, 킬로미터는 한자어 수관형사와만 쓰일 수 있음을 제시
- 기름 십 리터



기름 열 리터

- 연결어미 '-어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었-', '-겠-'과 쓰일 수 없음을 제시
옷을 벗어서 벽에 걸었다.

옷을 벗었어서 벽에 걸었다.

- 연결어미 '-면서'는 앞뒤 문장의 주어가 항상 같아야 함을 제시

은미는 이를 닦으면서 발을 굴렀다.

은미는 이를 닦으면서 영수는 발을 굴렀다.

③ 구체적인 상황 정보

- 한국어 높임법의 경우 통사론의 범위를 벗어남. 사회언어학적 정보 제시 고려.

- 교수와 제자,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에 쓸 수 있는 높임법

- 부모님이나 선생님, 직장 상사 등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높임법

- 처음 만난 사람이나 손님과 같이 예의를 갖춰야 할 관계에서 주로 쓰는 높임법

- 선후배나 동료 관계처럼 친분이 있으나 공적인 관계에 있을 때 쓰는 높임법

- 친구 관계나 그밖에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높임법

- 회의나 연설, 발표, 보고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쓰는 높임법

- 길 찾기, 물건 사기,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하기 등 일상적인 만남이나 상황에서 편하게 쓰는 높임법

④ 이해하기 쉬운 문법 용어

- 어려운 문법 용어

용언, 체언, 수식언, 발화시, 사건시, 분리적 선어말어미, 무정 명사, 유정 명사, 전제, 함의, 이접, 순접,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 어려운 문법 용어 대신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해야 함.

3. 한국어 문법의 내용 체계 수립 방향

(1) 기준 : 의사소통 기능 신장을 위한 기반 지식이 되어야 한다.

- 중세 국어 문법이나 국어사 관련 지식은 중심이 되지 못한다.

- 우리말과 글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은 중심이 되지 못한다.

- 사고력 신장을 위한 언어활동은 중심이 되지 못한다.

(2)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 내용 체계의 대범주

- 한국어의 특징

- 한국어의 발음

- 한국어의 단어

- 한국어의 문장 구성



-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한국어의 사용 원리
- 한국어의 규범
- 한국어의 사용의 태도

제3차시

한국어의 특징 I

개요

* 주제
한국어의 특징 I

* 학습 목표
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의미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②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한국어의 분포
② 첨가어, 고립어, 굴절어, 포함어, 1유형, 2유형, 3유형

주요용어

1. 언어

예전에는 언어라 하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음성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을 통틀어 가리킨다. 언어는 또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2. 한국어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학습하기

1. 한국어의 분포와 위상

(1) 교재의 설명

- 세계 5000여 종 이상의 언어가 있다.
- 전 세계 인구 70~80%가 사용하는 언어가 불과 20여 개
- 한국어는 남한 4,400만 명, 북한 2,300만 명, 남북한 통틀어 6,700만 명 사용
- 재외 동포, 중국 200만 명, 미국 180만 명, 일본 70만 명, 구소련 지역 50만 명, 중남미 9만 명, 기타 지역 13만 명, 호주와 유럽 등지까지 합치면 모두 7,200만 명.
- 국내와 재외 동포까지 합치면 세계 제13위 언어.
- 아래는 우리 교재 24쪽에서 재인용

■ 세계 주요 언어의 사용 인구수 ■

(단위 : 백만, Crystal David. 1997:289쪽)

	모국어로 쓰는 경우		공용어로 쓰는 경우	
	언어	인구 수	언어	인구 수
1	중국어	726	영어	1400
2	영어	427	중국어	1000
3	스페인어	266	힌디어	700
4	힌디어	182	스페인어	280
5	아랍어	181	러시아어	270
6	포르투갈어	165	프랑스어	220
7	벵골어	162	아랍어	170
8	러시아어	158	포르투갈어	160
9	일본어	124	말레이어	160
10	독일어	121	벵골어	150
11	프랑스어	116	일본어	120
12	자바어	75	독일어	100
13	한국어	66	우루드어	85
14	이탈리아어	65	한국어	67
15	핀잡어	60	이탈리아어	60
16	마라트어	58	베트남어	55
17	베트남어	57	페르시아어	50
18	텔루구어	55	타갈로그어	50
19	터키어	53	타이어	50
20	타밀어	49	터키어	50



(2) 2012년 국립국어원 공개 통계

- 7,100만 명이 한국어를 사용함
- 2009년 6,822,606명의 재외동포가 한국어 사용
- 2009년 23,380,337명의 북한 인구가 한국어 사용

(3) 국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과목 개설 현황

(출처 : 김정숙 외,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지역	국가	현황			
		학교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아시아 지역	일본	378	60.2	11,679	3.8
	몽골	10	1.6	1,052	3.0
	대만	7	1.1	223	0.6
	태국	2	0.3	90	0.3
합계		397	63.2	13,044	37.7
대양주 지역	호주	37	5.9	3,472	10.0
	뉴질랜드	5	0.8	411	1.2
합계		42	6.7	3,883	11.2
미주 지역	미국	63	10.0	5,667	16.4
	캐나다	9	1.4	405	1.2
	브라질	3	0.5	62	0.2
합계		75	11.9	6,134	17.8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지역	러시아	55	8.8	6,658	19.2
	우크라이나	2	0.3	194	0.6
	카자흐스탄	38	6.1	1,326	3.8
	기르기스스탄	6	1.0	324	0.9
	우즈베키스탄	12	1.9	3,027	8.8
합계		113	18.1	11,529	33.3
아프리카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1	0.2	2	0.0
총 합계	15개국	628	100	34,592	100



(4)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수 (2001~2008년)

- 2001년 34개국 65개
- 2002년 130개국 1,988개
- 2003년 124개국 2,053개
- 2004년 124개국 2,125개
- 2005년 131개국 2,099개
- 2006년 134개국 2,144개
- 2007년 140개국 2,185개
- 2008년 141개국 2,187개

이병규(2008),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5) 국외 대학 한국어 강좌 개설 수(국가별)

- 일본 335개 2007년
- 미국 140개
- 중국 54개
- 러시아 42개
- 몽골 11개
- 카자흐스탄 10개
- 베트남 10개
- 독일 10개
- 기타 56개국 130개

박영순(2007), 세계화와 국어교육; 세계화 시대 한국어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 한국어의 형태적 특징

(1) 언어의 유형별 특성

- 언어를 형태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고립어, 굴절어, 첨가어, 포함어로 나눌 수 있다.
- 정확하게 고립어, 굴절어, 첨가어, 포함어로만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고립어

我看書.

나는 책을 읽는다.

I read a book.

(예시, 두산백과)

- 중국어의 경우 각각의 단어가 혼자서 문장성분역할을 한다.
- 한국어의 경우 ‘-는, -을’의 도움을 받아 ‘나, 책’이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 영어의 경우 ‘I’에 조사같은 것이 붙지 않았지만 형태가 주격이다.



- 중국어의 경우에도 허사가 있으므로 엄밀한 고립어로 보기는 어렵다.
- 영어의 경우에도 대명사가 아닌 명사가 오는 경우 격에 따라 다른 형태가 오지 않고 오로지 어순에만 의존하므로 고립어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굴절어

Puer puellam amat.

Puellam puer amat.

Puellam amat puer.

(예시, 두산백과)

- puer는 남성 ·단수·주격, puellam은 여성 ·단수 ·대격
- 단어가 문장에서 갖는 역할에 따라 적절한 굴절형을 갖는다.
- 어순이 자유롭다.
- 영어의 소유격 of A은 고립어적 용법이지만 A's는 굴절어적 용법이다.

③ 포합어(두산백과 사전의 설명 요약)

illu- mi- niip- puq

house his be-in 3인칭-단수-직설법

‘그는 자기 집에 있다.(He is in his (own) house)’

-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나 형용사도 접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다.
- 한 문장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보여서 포합어라고 한다.

④ 교착어

- 첨가어(affixing language)라고도 한다.
- 고립어(孤立語)와 굴절어(屈折語)의 중간적 성격
- 어근(語根)에 접사(接辭)가 결합되어 문장 내에서의 각 단어의 기능을 나타낸다.
- 굴절어의 경우와는 달리 어간에서의 어형교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2) 종합적 체계와 분석적 체계

- 단어를 분류하여 품사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종합적 체계, 분석적 체계, 절충적 체계로 나뉜다.

① 종합적 체계

그 꽃이 활짝 피었다.

- 그, 꽃이, 활짝, 피었다.
- 종합적 체계에 따르면 조사는 최소자립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어로 볼 수 없다.



② 분석적 체계

그 꽃이 활짝 피었다.

- 그, 꽃, 이, 활짝, 피, 었다
- 분석적 체계에 따르면 최소자립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분리성이라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어미를 단어로 설정하게 된다.

③ 절충적 체계

그 꽃이 활짝 피었다.

- 그, 꽃, 이, 활짝, 피었다.
- 절충적 체계는 조사는 분리성을 감안하여 단어로 취급하고 어미는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④ 결론

- 분석적 체계와 종합적 체계는 결국 활용의 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띤다.
- 절충적 체계가 이름 그대로 절충적 형식을 택한 것 같기는 하지만 문법 운용 면에서 난감한 면이 있다.
- 이 모든 논의가 국어의 형태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4차시

한국어의 특징 2

개요

* 주제
한국어의 특징 2

* 학습 목표
① 한국어 문장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② 한국어 단어의 특징을 범주별로 말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한국어 문장의 특징
② 한국어 단어의 특징

주요용어

1. 단어

한국어에서 단어는 다른 말로부터 분리되어도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거나 이에 준하는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는 이렇게 자립적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인 조사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수식

수식이란 문장에서 용언과 체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말들 앞에 특정한 말을 두는 일을 말한다. 그 경우 용언과 체언은 피수식어가 된다.



학습하기

1. 한국어 문장의 특징

(1) 한국어 어순

① 언어 일반 어순

SVO형(주어+서술어+목적어) : 영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등

VSO형(서술어+주어+목적어) : 히브리어, 마오리어, 웨일스어 등

SOV형(주어+목적어+서술어) : 한국어, 일본어, 몽고어, 터키어, 미얀마어, 힌디어 등

② 한국어 어순

아이가 사과를 씻는다.
푸른 하늘에 편지를 써.
붉은 꽃이 향기도 매우 좋았다.

- 주어+목적어+서술어
- 문법적 요소인 ‘-가, -를, -는다’ 등은 어간이나 어근 뒤에 온다.
- 수식어가 수식받는 말 앞에 놓인다.

그를 어제 만났어.	그는 그림을 잘 그린다.
어제 그를 만났어.	그는 잘 그림을 그린다.
만났어 그를 어제.	내가 받은 선물은 친구가 준 것과 같았다.
어 어제.	선물은 내가 받은 친구가 준 것과 같았다.
만났어 어제 그를.	

- 문장성분의 자리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 특정 성분을 꾸미는 부사어의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이나 관형사는 반드시 수식어 앞에 와야 한다.

토끼가 앞발이 짧다.
그 옷이 단추가 색깔이 곱다.
은수가 나를 다리를 걸었다.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수박을 잘 익은 것을 두 통을 사 오셨다.



- 주어로 보이는 성분이 두 개 이상 나타날 수 있다.
- 목적어로 보이는 성분이 두 개 이상 나타날 수 있다.
- 주어나 목적어의 반복 등장은 아무 때나 성립되는 것은 소유자와 소유물,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해석될 때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 2동 232
 2014년 7월 12일 오전 9시 10분
 3시 5분 전(5분 전 3시)

- 주소나 시간을 언급할 때, 큰 것에서 시작하여 작은 것을 쓴다.

2. 한국어 단어의 특징

(1) 명사

여러 사람들이 목을 축이기 위해 모여들었다.
 여러 사람이 목을 축이기 위해 목여들었다.

- 문장에서의 기능(격)을 담당하기 위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
- 격을 위해서 조사가 결합한다.
- 한국어 명사는 남성과 여성의 형태적 구분이 없다.
-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 명사의 성과 수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관형어나 동사의 성, 수 변화도 없다.

(2) 의존명사

은식이가 마실 것을 줌 가져 왔다.
 그를 찾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서 있었다.

- 의존명사의 통사론적인 정의 : 관형어를 필수로 요구하는 명사
- 한국어에는 명사의 역할을 하지만 필수적으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명사가 있다.
-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부척 발달해 있고 그 단위를 통해 사람, 짐승, 채소 등을 판별할 수 있다.



(3) 대명사

만득이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이라 품앗이 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지만 곱단이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곱단이 작은오빠하고 만득이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곱단이네 집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고 싶어 하는 게 친구네 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 곱단이네 집이기 때문이란 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더운 점심을 짓느라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따뜻한 가을날, 곱단이네 지붕에서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득일 보고 동네 노인들은 체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만, 하고 혀를 찼지만 그건 곧 만득이가 곱단이 신랑이 되리라는 걸 온 동네가 다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 한국어는 대명사보다 같은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편이다.
- 가리키는 대상이 윗사람일 경우 그녀, 그와 같은 대명사는 쓰지 않는다.
- 관계대명사가 없다.

거기 누구 있니?(↘) -> 거기 있는 사람 누구니?
 거기 누구 있니?(↗) -> 거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의 형태가 같다.

(4)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검다, 빠르다, 같다, 다르다, 아프다, 좋다, 곱다, 덥다, 노랗다, 깨끗하다, 낫다(질이나 수준이 더 좋거나 앞서 있다)

- 영어의 경우 형용사가 명사와 비슷한 속성을 지니는데 한국어는 동사와 비슷하다.
- 어미 활용을 하며 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동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동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현재 시제 서술형 어미 ‘-는다/-는다’를 결합시켜 보아야 한다.

(5) 접속사

- 한국어에는 접속사라는 품사 명칭이 없다.
-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 ‘-아/-어, -게, -지, -고’를 사용한다.
-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만’은 형용사의 활용형이 굳은 것이다.

(6) 조사와 어미

내가 사과를 샀다.
 백화점마다 사람들로 붐볐다.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집으로 보냈다.



- SOV형(주어+목적어+서술어) 언어에 많은 후치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사가 한국어에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친구가 산 자전거와 같은 것을 나도 샀다.
영희가 어제 결석했음이 밝혀졌다.

- 어미가 매우 발달하였다.
- 문장을 끝맺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 문장을 끝맺는 어미에 따라 듣는 사람을 높이는 등급을 표시한다.
- 말하는 사람의 사태에 대한 생각을 어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두 문장을 원인, 이유, 조건 등 여러 의미 관계로 이어줄 때에도 어미(연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 어미가 결합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용언)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문장이 가리키는 사건 전체이다.

(7) 관형사

무슨, 어떤, 한, 두, 세, 네, 일, 이, 삼, 사, 새, 현, 다른 등

-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의 관사에 해당하는 어휘 범주로 관형사가 있다.
- 지시, 의문, 부정, 수 속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관형사

(8) 이다

- 영어의 계사와 비슷하다.
-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함.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서술어의 구실을 한다.

(9) 흉내말

팡팡, 철썩철썩, 찰랑찰랑
깔깔대다, 필력이다.

- 한국어에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 '-이다, -거리다, -대다' 등과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 주로 같은 형태가 되풀이 되어 쓰인다.
- 모음이나 자음을 바꾸어 말의 느낌에 변화를 준다.

개요

* 주제
한국어의 특징 3

* 학습 목표
① 한국어 자음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말할 수 있다.
② 음절 구조의 개념을 알고 한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한국어의 자음
② 음절 구조의 개념, 음절끝소리규칙, 자음 연쇄

주요용어

1. 음절

발음 가능한 최소의 단위를 가리켜 음절이라고 한다. 보통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혼자서 발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 자음

목구멍, 입, 혀 따위에 의해 구강이 좁혀지거나 막히는 등의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자음은 조음 위치나 방법에 따라 분류되고 이름이 붙는다.



학습하기

1. 언어음의 실재

(1) 음소의 특징

① 음소의 발견

- 음성실험실과 기록계기들의 정확성이 고도로 향상됨.
- 결국 사람은 같은 음을 두 번 다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함.
- 한 음을 다른 언어권의 두 사람이 같은 발음으로 할 수 없음.
- 한 음을 같은 언어권의 두 사람이 같은 발음으로 할 수 없음.
- 한 음을 한 사람이 이전의 발음과 똑같이 발음할 수 없음.
- 음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은 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소리이나 사실은 모두 다른 소리임을 발견함.

② 화자가 같은 소리라고 믿는 음의 실체

- '사과'로 지칭되는 대상은 단일하다는 믿음이 있다.
- 시장에 가면 '사과'를 금방 찾아낼 수 있고 다른 과일과 구별할 수 있다.
- 그러나 '사과'는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
- '사과'는 사실은 모두 다르게 생겼으며 색깔도 모두가 다르다.
- 그러나 그 다양한 '사과'들을 '사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 현실의 '사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우리 머리의 사과를 하나의 종류라고 굳게 믿고 있다.
- 하나의 음의 실체로 사실은 다양한 이종의 소리들 집합이다.

③ 물리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차이(전상범 1980 : 6쪽)

- 철수가 발음하는 a, b, c 소리의 물리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a b c

- 혀 짧은 소리 내는 영민의 a1, b1, c1 소리의 물리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a1 b1 c1

- 둘을 대조하면

a b c

a1 b1 c1

- 물리적 차이에 기반하면 a, a1, b1이 한 동아리로 묶인다.
- 물리적 차이에 기반하면 b, c1이 한 동아리로 묶인다.
- 그러나 실제로는 a, a1 한 동아리, b, b1 한 동아리, c, c1 한 동아리로 묶인다.



2. 음운론의 기본 지식

(1) 말을 주고받는 과정

① 심리적 단계

- 하고 싶은 말을 정하는 과정
- 문장 전체의 속도가 정해지면 음절의 길이와 강약을 결정
- 결정된 음절의 길이와 강약이 신경 맥박으로 바뀜
- 신경 맥박은 호흡기관, 발성기관 및 조음기관으로 전달
- 이 단계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바는 없다.

② 생리적 단계

- 뇌에서 신경 계통을 통해 전달된 정보의 발음
- 호흡기관, 발성기관, 조음기관의 협업
- 이 때 발생된 소리를 말한 나 자신과 내 앞에 있는 대화 상대자가 듣는다.
- 말하는 사람 자신도 자신의 말소리를 모니터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 즉 생리적 단계와 곧이어 나올 물리적 단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물리적 단계

- 화자의 발성기관이 공기에 간헐적인 압력을 가한다.
- 이 소리가 상대방의 귀에 도달해 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 이 소리는 상대방 귀에 도달해 해석되기 전까지 음파로 존재한다.

④ 생리적 단계

- 화자의 입을 떠났던 음파가 청자의 귀에 도달하여 고막을 진동한다.
- 청자의 고막을 울리는 동시에 화자의 고막과 뼈도 울린다.
- 고막의 진동은 蝸牛管으로 전달된다.
- 外耳에 가 닿은 진동과 蝸牛管으로 가 닿은 진동에는 변화가 있다.

⑤ 심리적 단계

- 蝸牛管에서 전달되어 온 신경 맥박을 해석하는 단계
- 주로 뇌의 좌반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 신경 맥박에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의 명제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화자의 감정, 성품, 교육 수준, 교양의 정도 등 많은 정보를 얻어낸다.
- 신경 맥박이 하나의 영상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전혀 현재의 지식은 백지이다.
- 인간의 언어에는 잉여가 많이 있다.
- 잉여가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외의 것이 많다는 뜻.
- 잉여 성분에는 상황적인 것, 통사적인 것, 음운적인 것들이 있다.
- 잉여 성분이 많으므로 음파 하나하나를 정확히 못 들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2) 음성학의 영역

① 조음음성학

- 소리의 생성에 대한 기술
- 생리적 단계에 대한 연구

② 음향음성학

- 화자의 입을 떠난 말소리의 음파를 연구
- 물리적 단계에 대한 연구

③ 청각음성학

- 음파의 형태로 전달된 음성이 청자의 귀에 도달하여 해석되는 과정 연구
- 인간의 귀는 물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소리의 진동수에 산술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생리적 단계와 심리적 단계에 대한 연구
- 이 분야의 연구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험심리학적으로 이루어진다.

(3) 음운론이란

- 음성들이 언어에서 하는 기능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

3. 한국어 소리의 특징

(1) 한국어 소리의 특징

- 무성순치마찰음(Voiceless labio-dental fricative), 유성순치마찰음(voiced labio-dental fricative), 무성치아마찰음(voiceless dental fricative), 유성치아마찰음(voiced dental fricative)가 없다.
- 파열음의 유성음과 무성음, p-b, t-d, s-z, k-g의 대립이 없다.
- 예사소리(ㄱ, ㄷ, ㅂ) : 거센소리(ㅋ, ㅌ, ㅍ) : 된소리(ㄲ, ㄸ, ㅃ)의 대립이 있다.

(2) 한국어 음절 구조

① 음절의 뜻

- 발음이 가능한 최소의 단위
- 성절음이란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음이라는 뜻
- 국어는 모음만 성절음이다.

② 가능한 음절 유형(V : 모음, C : 자음)

- V형 : 이, 요, 위 등
- CV형 : 키, 보, 나, 파, 모 등
- VC : 음, 양, 옷 등
- CVC : 국, 밥, 떡, 꿈 등



③ 한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

- 말의 첫머리에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외래어 라디오, 레몬, 럭비, 뉴스는 예외)
- ㄷ, ㅈ, ㅊ, ㅌ, ㅍ, ㅍ 앞에서 ‘ㄴ’이 발음되지 않는다.
- 말의 첫머리에 자음 무리가 올 수 없다.
- 음절 끝에는 자음이 하나만 온다.
- 음절 끝에서는 모든 소리가 불파음으로 실현된다.
- 모든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일곱가지 자음의 불파음으로만 발음된다.

제6차시

한국어의 특징

개요

* 주제
한국어의 특징

* 학습 목표
① 한국어의 복잡한 대우법을 담당하는 문법 표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② 한국어에서 주어의 필연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한국어 문법의 대우법과 상황
②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의 필연성

주요용어

1. 대우법

말 그대로는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으로서 경어법이라고도 하고 높임법이라고도 한다. 누군가를 높이는 방법에는 누군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기 마련이므로 대우법 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2. 주체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이라는 뜻도 있고,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 문법에서 주체는 문장 내에서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을 하거나 상태를 드러내는 대상이 주체이다.



학습하기

1. 한국어의 높임법

(1)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결정하는 요인

- ① 나이의 많고 적음.
- ② 두 사람의 친밀감 형성의 정도.
- ③ 직위의 높고 낮음
- ④ 향렬

(2) 한국어 높임법의 성립

현교가 전화를 받는다.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신다.

해솔아, 집에 가니?
선생님, 댁에 가십니까?

① 높임법의 성립

- 조사 : 가, 께서
- 어미 : -는다, -(으)신다; -니, -십니까
- 어휘 : 집, 댁

② 높임법의 종류

-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

2.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

주어는 격이라는 문법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어에서는 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사의 역할에 대하여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할 곳이 없으므로 여기서 잠시,

문장 성분의 논의 전에 격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보기로 한다.



(1)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① 격조사의 일반적 설명과 정리

격조사에 대한 최현배의 설명 : 격조사는 체언 아래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의 조성성분으로서의 일정한 격을 얻게 하는 조사를 가리키며, 여기서 격이란 체언의 문법에서의 직책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격에 대한 허용의 설명 : 격이란 체언과 문 안의 다른 말과의 일정한 문법적 관계이다.

- 체언에만 연결된다.
-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격을 얻게 하며, 특수한 속뜻이 없다.

② 보조사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정의

보조조사에 대한 허용의 설명 : 보조조사는 체언에 붙어서 체언에 일정한 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을 가미해주는, 곧 그것이 붙은 성분의 뜻을 여러 가지로 보조하는 구실을 하는 조사이다.

- 체언뿐 아니라 일부의 부사나 용언어미에도 연결됨.
- 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을 가미함

(2) 주격 조사(및 목적격 조사)에 대한 기존 논의의 비판(신창순 1984의 내용)

① 주격 조사의 기존 논의와 의문

동학은 본시가 경상도의 농촌에서 움터서.....
 알고도 안타깝지가 않단 말예요?
 가게가 되면야 가지만 말일세.
 네가 왔다 해서가 아니라..... / 물이 먹고가 싶은가 봐요.
 나는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는 내 앞에 서질 마라
 맛으로 좀 먹어를 보게. / 우선 좀 쉬고를 봐야지.

- 주격(목적격)이 체언 외에도 붙었다.

말은 유용한 동물이다.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 사람은 착하다.

말이 유용한 동물이다.
 장미꽃이 아름답다.
 이 사람이 착하다.



- ‘이/가’에는 선택 및 지정의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격표지는 아무런 뜻이 없고 문장에서의 기능만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나 여기서의 발견은 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도 가겠다.
음악도 감상할 여유를 못 갖는다.
학교도 가기 싫어 해요.

- 보조사도 주격과 대격, 처격의 자리에 있다.
- 조사의 격 표지 역할에 대하여 어떤 의문을 갖게 만든다.

② 격의 개념

- 굴절어에서 격 : 명사, 형용사, 대명사, 수사, 분사의 어형변화로서, 그것은 특정 곡용어미나 단어 내부의 모음 교체 등에 의해 변별된다. 이것들이 나타내는 단어의 문법적 기능, 즉 통사적 관계가 격이다.
- 비굴절어의 격 : 격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의 문법적 기능 곧 통사적 기능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전치사, 접미사, 불변화사 등이며 때로는 어순에만 의존하기도 한다.

③ 격의 표시법에 대한 비판적 근거

- 보조조사도 주격, 대격 때로는 부사격의 자리에 나타난다.
- 격표지 없이도 그 격을 알아차릴 수 있다.
- 입말에서는 격조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격조사가 격만 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용법을 가진다.

④ 격 표시 조사의 한계

“톱, 나무, 벤다”로 문장 만들기

톱이 나무를 벤다.
톱으로 나무를 벤다.

톱과 나무가 벤다.
톱을 나무로 벤다.
톱을 나무와 벤다.
톱과 나무를 벤다.
톱에 나무가 벤다.
톱이 나무에서 벤다.

- 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비문이다.



꽃에서 아름답다.
산을 높다.

- ‘에서’, ‘을’ 등의 조사는 동사와 어울리나 형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격은 서술어와 그와 결합되는 보어의 소재인 용언과 체언의 어휘적인 의미특징, 그리고 문맥 등에 의해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 격이 갖는 한계는 생활 경험의 유형과 언어논리이다.

⑤ 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격 또는 격 의미는 서술어와 그것의 보어가 되는 말의 어휘적 의미 특징과 격조사의 의미가 종합된 그 다음에 결정된다.

⑥ 앞으로의 공부를 위하여

- 주어 등의 문장 성분 생략에서 주어를 결정짓는 것이 조사인지 어휘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 막연하게 조사에만 의지해서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태도는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설명해야 할 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3) 한국어에서 주어의 필연성

이 수박 얼마예요?
만 이천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올해 수확량이 많지 않아 비싸요.
조금만 깎아 주세요.
그럼 만 천 원에 가져가세요.
만 원에 주세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 대부분의 말에서 주어가 없다.
- 없어도 말이 이해가 될 때에는 주어는 쓰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신문을 보신다.
새가 울면서 날아간다.
나는 어제 본 영화를 동생에게 얘기해 주었다.

- 앞뒤 문장의 주어 중 하나는 생략된 형태의 문장이다.



이젠 그만 울어야 좋겠는데.
길이 넓어서 다행이군요.
그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즉시 여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 한국어에서는 이해만 되면 주어나 목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어를 알기 어려운 문장도 있다.
- 영어의 경우 주어가 없는 경우에조차 주어라는 것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제 7 차시

한국어 문법론

개요

* 주제
한국어 문법론

* 학습 목표
① 한글 자음자의 제자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② 한글 모음자의 제자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자음자 : 상형, 가획, 병서, 연서, 자음 기본자
② 모음자 : 상형, 가획, 병서, 모음 기본자

주요용어

1. 형태
형태는 일정한 소리의 덩어리를 말한다. 이 소리의 덩어리는 음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리의 덩어리가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일 경우 우리는 형태소라고 부른다. 형태소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2.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한글의 창제 초기 명칭이다. 세종실록에 처음 글자를 만들고 이것을 가리켜 훈민정음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다가 3년 뒤 이 문자에 대한 해설이 나왔을 때 그 책을 가리켜 또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2) 한글의 창제 의의

① 훈민정음 서문

國之語音異乎中國與 文字不相流通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 其情者多矣予爲此憫 然新制二十八字欲使 人人易習便於日用耳	나라말쓰미뉥귀에달아문짱와로서르스뭇 디아니홀씨이런전츠로어린빅성이니르고 저홍배이셔도ㄹ츨내제쁘들시러퍼디뭇홍 노미하나라내이틀위하야어엿비너겨새로 스물여덟짱를뎡ㄹ노니사람마다히여수비 니겨날로뿌메뻥한키호고져홍싸르미니라
총54자	총108자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백성이 말하
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② 서문을 통해 본 창제의 의의

- 임금이 글을 모르는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렸다.
- 사대교린의 정책 속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 우리말을 표기할 수단이 생겼다.
- 세계 문자사에서 주목할 만한 합리적 문자 체계의 출현이다.
- 문자의 사용 안내서(매뉴얼)이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그 매뉴얼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다.(국보 제70호 해례본 훈민정음, 1997. 1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3. 한글의 인위성과 과학성

(1) 한글의 인위성

- ① 문자 창제의 이유와 사용법을 밝힌 문자 사용 안내서(매뉴얼)이 있는 유일한 문자
- ② 구체적인 창제 연월이 있는 문자
- ③ 계보가 없는, 어느 날 인위적으로 창제된 문자
- ④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 세종 25년(1443년 겨울)
- ⑤ 문자 사용 안내서 훈민정음의 편찬(국보 70호 훈민정음) : 세종 28년 (1446년 9월 상순)
- ⑥ 유례없는 문자 사용 안내서의 1997. 1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 과학성

- ① ‘ㄱ, ㅋ; ㄴ, ㄷ, ㅌ; ㅁ, ㅂ, ㅍ; ㅅ, ㅈ, ㅊ’에 숨은 뜻
- 세계 공통의 발음 형상을 담고 있다.
 - ‘ㄴ’은 혀끝이 위턱에 닿은 모양을 본뜬 것
 - ‘ㄴ’은 발음기호로 [n]을 가리키는 문자인데,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혀를 ‘ㄴ’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 글자 모양에서 글자의 발음을 알 수 있는 글자
- ② 획수의 증가에 따른 발음의 변화
- ‘ㄴ, ㄷ, ㅌ’은 발음되는 위치가 같다.
 - 발음할 때 강도가 ‘ㄴ->ㄷ->ㅌ’ 순으로 점점 세진다.
 - 한글은 획이 많을수록 거친 소리를 나타낸다.
- ③ 기본 도형 8개 : ㄱ, ㄴ, ㅁ, ㅅ, ㅇ; ㆍ, ㅡ, ㅣ
- 한글은 모두 8개 기본 도형으로부터 비롯한다.
 - 8개밖에 안 되는 기본 도형에 획을 더하거나 기본자를 합하거나 해서 다양한 글자가 디자인되었다.
 - 모음자와 자음자의 구별이 명확하다.
- ④ 로마자와의 비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ㆍ, ㅡ, ㅣ, ㅊ, ㅌ, ㅍ, ㅋ, ㅌ, ㅍ, ㅊ, ㅋ

ㄱ ㄴ ㅁ ㅅ ㅇ

ㅋ ㄷ ㅂ ㅈ ㅎ

 ㅌ ㅍ ㅊ ㅋ

- 로만알파벳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음자와 자음자를 결정지를 만한 글자꼴의 특징이 포착되지 않는다.
 - 로만알파벳에서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글자꼴의 특징 또한 유형화하기 어렵다.
- ⑤ 아름다운 글자
- 아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의 한글은 붓으로 쓰기 어려운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 필기도구였던 붓의 필기력을 넘어섰다는 것은 창의적인 디자인을 암시한다.

제8차시

한국어 문법론

개요

* 주제
한국어 문법론

* 학습 목표
① 한국어 어순상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② 기본 문형을 형식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문장 성분의 순서
② 단어끼리의 순서

주요용어

1. 본동사
문장의 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지만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동사를 가리켜 본동사라고 한다. 본용언에 포함된다.
2. 보조동사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그 하위 분류에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가 있다. 예를 들어 '적어 두다'의 '두다'가 보조동사이다.



학습하기

1. 어순

(1) 주어 + 서술어

- 모든 언어를 통틀어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어순
- 대부분 언어에 공통적임.
- 문장 성분으로 보통은 어순을 언급하지만 어미와 조사가 발달한 한국어는 이러한 설명에 주의를 필요함.

The child cries.

(2)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목적어가 온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의 유형이다.

That student writes a letter

(3) 한국어 어순의 특징

① 수식하는 말 + 수식받는 말

- 수식 : 문법에서 체언, 용언에 딸려 그 뜻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일.
-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말은 명사 앞에 온다.

새 차 : a new car

내가 사랑하는 여자 : the girl that I love

준호의 책 : the book of Junho

-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말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앞에 온다.
- 관형사보다 자유로움.

준호는 천천히 걷는다.

영미는 무척 아름답다.

철수는 매우 빠르게 달린다.

② 명사 + 조사

- 명사가 문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조사를 필요로 한다.
-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으며 조사가 결합되었을 경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 조사의 사용은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철수가 영희를 길에서 만났다. - Cheolsu met Yeonghi on the street.

③ 본동사 + 보조동사

- 한국어에서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위치는 본동사가 앞에 온다.

- 영어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조동사가 본동사의 앞에 온다.

나는 문을 열어 보았다.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I can speak English.

I will go now.

④ 자유로운 어순

- 격조사는 명사가 문장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표시한다.

- 한국어는 격조사가 발달하여 격조사가 결합하는 명사구는 어순에 제약이 적다.

- 어순 제약이 적어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나 그 자유는 의미의 손상 및 미묘한 변화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다.

성수가 진영이를 만났다.

진영이를 성수가 만났다.

⑤ 서술어의 위치

-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이지만 다른 위치로 와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 강조를 위해 옮기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발화 실수에 의해 문장 끝에 올 때도 있다.

2. 기본 문형

(1) 기본 문형의 구성 요소

① 주어

-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

-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태나 속성의 대상

② 서술어

- 주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

- 대상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냄

③ 목적어

- 서술어가 표현하는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말



④ 보어

- 주어 + 보어 설명하는 말

⑤ 부사어

-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시간

-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일어난 원인

-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데 쓰인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말

(2) 기본 문형

① 주어 + 서술어

해가 뜬다.

②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가셨다.

③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선생님께서 빗자루를 만드셨다.

④ 주어 + 보어 + 서술어

그것은 빗자루가 아니다.

⑤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서술어

선생님께서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드셨다.

⑥ 분열문(cleft sentence)

내가 어제 산 것은 한국어 문법 책이었다.

우석이나 떠난 것은 어제였다.

- 특정 정보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장 형태
- ‘것은’과‘이다’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는다.

⑦ 명사 종결문

휴대전화를 끌 것
예정대로 목적지에 도착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함.
입 다물기

- 명사나 서술어의 명사형으로 문장을 끝내는 것
- 공고문이나 지시문, 요약, 메모에 사용됨.
- ‘것’, ‘도착’, ‘-(으)ㄴ’, ‘-기’로 끝남.



(3) 기본 문형 설정에서 문제점

① 학교 문법의 기본 문형

- 무엇이 어떠하다.(달이 밝다.)
- 무엇이 어찌한다.(별이 반짝인다.)
- 무엇이 무엇이다.(저것이 책이다.)
-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학생이 글을 읽는다.)
-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 된다.(저것이 책이 아니다.
물이 얼음이 된다.)

② 기본 문형 설정을 위한 문법 단위 설정

- 형태소가 모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이면 어절이 된다고 설명한다.
- 어절이 모이면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 어절이 문장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문장 성분’이라고 설명한다.
- 단어에 조사가 붙은 것을 어절이라 설명한다.
- 구도 조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
- 구에 조사가 붙은 것을 구절이라 명명한다.
- 절도 문장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조사의 도움 역시 필요로 한다.
- 절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 성분 역할을 할 때 성분절이라고 명명한다.

③ 문법 단위 설정의 문제점

- 어절만이 아니라 구절과 성분절도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단위는 그것이 단어이든 구이든 문장이든 명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어절, 구절, 성분절은 문법에서 사실상 필요없는 이름일 수도 있다.

제9차시

한국어 문법론

개요

* 주제
한국어 문법론

* 학습 목표

- ①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표시
- ②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말

주요용어

1. 격조사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서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한다.

2. 보조사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뿐만 아니라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도 붙을 수 있는 말로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가리켜 보조사라고 한다. 특수 조사, 보조 조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학습하기

1. 주어

(1) 뜻

-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중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 동작, 상태, 속성의 주체가 되는 말

(2) 표시

- 주격조사 '이/가'가 붙어서 표시된다.
-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이'와 '가' 중 하나가 선택된다.

날씨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민수는 겨울을 좋아하고 민희는 여름을 좋아한다.

-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거나, 대화의 주제이거나,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일 때, 다른 것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일 때
 보조사 '은/는'이 나타나고 주격조사는 생략된다.

너 어디 아프니?
 누나 왔다. 어서 문 열어 줘라.

-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인지 주격 조사 없이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 구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경우가 많다.
- '이/가' 외에 '께서'(높임), '에서'(단체)가 주어를 표시할 수 있다.

(3) 주제어와 주어

저는 현석입니다.
 제가 현석입니다.

시간은 현석이 정했습니다.
 현석이 시간을 정했습니다.

버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많이 있었습니다.



- 주어는 문법적 개념이고 주제는 담화적 개념이다.
- 주제는 구정보이며,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이며, 한정적 정보이고, 총칭적 정보이다.
- 목적어나 부사어도 '는'이 붙은 후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주제가 될 수 있다.
- 문법 기능으로는 주어이지만 담화 기능으로는 주제의 역할을 한다.

(4) 주어의 위치

내가 민수를 사랑한다.
 민수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민수를
 민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민수를 내가.

- 주어는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머지의 경우 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 어떤 의미적 차이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상황 의존적이다.

(5) 주어의 생략

- 주어의 생략은 다른 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일 수 있다.
- 언제 생략되는가의 문제보다 생략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어에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 불고기를 먹어 봤는데 참 맛있었어요.
 ()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영미 뭐해요?
 () 공부하고 있어요.

-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때 한국어의 주어는 생략되는 일이 잦다.
- 앞의 문장에서 나왔던 성분이 뒤 문장에서 되풀이될 때 생략된다.

불이야!
 민수가 안 오면 큰일인데.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다.

- 관용표현이 사용될 때 주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6) 중주어 문제

준호가 돈이 많다.
 철수가 성격이 좋다.
 민수가 키가 크다.
 이 백화점이 구두가 만원이 싸다.

- 중주어문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서술절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주어가 두 개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서술절로 보는 법은 '준호가 + 돈이 많다'로 나누고 '돈이 많다'는 다시 '돈이 + 많다'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2. 목적어

(1) 뜻

-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
-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2) 표시

- '을/를'이 붙어 목적어 표시
-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인 경우 '을', 모음인 경우 '를'로 표시

민규는 축구는 좋아하지만 야구는 싫어해.
 나는 과일은 좋아한다.

 그 사람 좀 만나야겠다.
 돈 좀 빌려줘.

-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점을 드러낼 때에는 보조사 '은/는'을 붙이고 목적격 조사는 생략한다.
- 입말에서 사용되는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 생략이 잦다.
-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도 목적어가 분명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3) 목적어의 위치

편지를 민수가 쓴다.
 쓴다, 민수가 편지를.
 편지를 쓴다, 민수가.
 쓴다, 편지를 민수가.



- 목적어의 원래 위치는 주어의 뒤, 서술어의 앞이지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는 나를 바보로 본다. / 그는 바보로 나를 본다.

나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 나는 아들로 그 아이를 삼았다.

그는 아들을 훌륭한 교수로 만들었다. / 그는 훌륭한 교수로 아들을 만들었다.

- 목적어와 부사어의 위치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의 예이다.
- 목적어와 부사어의 관계가 '대상'과 '속성'의 의미관계일 경우 그러하다.
- 다음 특정 동사들의 경우 이런 어순을 취한다.

가꾸다, 가르치다, 개발하다, 고치다, 구분하다, 굳히다, 기술하다, 기억하다, 꾸미다,
 느끼다, 대하다, 듣다, 만들다, 말하다, 맞다,
 묘사하다, 믿다, 바꾸다, 받아들이다, 발표하다, 보다, 부르다,
 분석하다, 비판하다, 뽑다, 생각하다, 선언하다, 선정하다, 선택하다, 설명하다, 세우다,
 소개하다, 속이다, 신고하다, 쓰다, 앉히다, 알다, 여기다, 의식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적다, 정하다,
 주장하다, 지니다, 짐작하다, 착각하다, 치다, 키우다, 택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표현
 하다, 풀이하다, 해석하다, 확신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친구로 생각한다.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로 여기신다.
 나를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4) 목적어의 생략

- 일반적으로 목적어의 생략은 불가능하다.
-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5) 중목적어

나는 민수를 팔을 잡았다.
 민수는 집을 욕실을 수리했다.
 차를 너무 비싼 것을 샀구나!
 영미는 자장면을 세 그릇을 주문했다.

- 문장에 나타난 명사가 통사구조 상 앞에 먼저 나온 명사의 일부분이거나 그것의 한 종류 또는 수량을 나타낼 때 목적어 표지가 두 번 사용된다.



민수는 온몸을 먼지를 뒤집어썼다.
 민수는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썼다.

선생님께서 그 책을 너를 주시겠니?
 선생님께서 그 책을 너에게 주시겠니?

- ‘가꾸다, 갈다, 감다, 걸다, 걸치다, 꽃다, 꿰다, 끼었다, 넣다, 담다, 덮다, 두르다, 바르다, 박다, 뿌리다, 붓다, 붙이다, 신다, 칠하다’ 등과 같은 동사가 올 때 목적격 조사 하나는 ‘에’로 바꿀 수 있다.
- ‘주다, 가르치다, 권하다, 드리다, 선물하다, 선사하다’ 등과 같은 동사가 올 때 목적격 조사 하나는 ‘에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을/를’을 ‘에’ 바꾸어 썼을 경우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 이때의 목적격 조사가 목적격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3. 서술어

(1) 뜻

- 주어에 대하여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누구이다)’에 해당하는, 설명하는 말(서술 대상인 주어를 서술한다.)
- 목적어나 보어의 출현을 결정하는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2) 서술어의 성립

① 동사, 형용사, ‘()이다’

민수가 웃는다.
 영미는 참 예쁘다.
 여기가 서울이다.

- ‘이다’ 앞에 꼭 명사가 아니더라도 무관

경기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영미를 만나러 간 것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그때 한 말은 ‘사랑해’였다.
 찬우도 오는 것은 물론이다.



② 절

미영이는 피부가 하얗다.
 민수는 목소리가 크다.

- 주어를 제외하고 남는 문장: '피부가 하얗다', '목소리가 크다'
- 주어가 두 개로 분석되는 문장
- 중주어로 보지 않고 서술절로 보는 경우도 있음.

③ '-하다'나 '이다'가 생략된 형태의 서술어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서울에 도착.
 야당은 여당의 의견에 반대.

(3) 서술어의 위치

민수는 똑똑이다.
 민수가 영미를 만났다.
 민수는 대학생이다.

영미가 썼다, 그 편지를.
 썼다, 영미가 그 편지를, 영미가.
 그 편지를 썼다, 영미가.

(4) 서술어의 생략

민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서울(에).

어제 영미를 만났어.
 나도.

- 짐작할 수 있는 경우.

제 10차시

한국어 문법론

개요

* 주제
한국어 문법론

* 학습 목표

- ① 보어와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보어와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구별
- ②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성립

주요용어

1. 부사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을 가리켜 부사어라고 한다. 부사가 당연히 부사어의 기능을 하거나 그 외에도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어미 ‘-게’로 연결된 형용사,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2.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한다.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따위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학습하기

1. 보어의 구별과 성립

(1) 보어의 구별

- ① 필수적 부사어와 보어의 차이 :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가 바뀔 경우 수의적 성분으로 바뀌므로 '과, 에게, 에, 로'와 같은 조사들의 지위가 보격조사로 일관되지 않는다.

저 몽타주가 실물과 같다. -> 광희가 동주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철수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 차를 다리 앞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거라.
 어머니는 영희를 수양딸로 삼았다. -> 시상 일자를 다음 달로 미루자.

(고영근·구본관 2008 : 299)

- ② 중주어문과 보어의 차이 : '되다', '아니다' 앞의 '이, 가'는 '께서'로 바뀌지 않는다.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니다. ->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다.

(고영근·구본관 2008 : 300)

- ③ 중주어문과 보어의 차이 : 관형구성으로 응축될 때 피관형어가 될 수 없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 짧은 앞발
 이 집안이 아들이 귀하다. → 귀한 아들
 이 꽃이 향기가 풍긴다. → 풍기는 향기

 만년필이 아니다. → 아닌 만년필,
 교수가 되었다. → 된 교수

(고영근·구본관 2008 : 301)

(2) '되다'의 다른 뜻(보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

완전자동사 '되다' : 성질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조사 '이/가'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
 철수는 인간이 됐어.
 광희는 주호에게 외사촌이 된다.

(고영근·구본관 2008 : 301)



(3) 보어의 성립

- ① 주격조사 '이/가'와 결합하여 주어를 보충하는 문장의 주성분
- ② 성질의 변화가 느껴지는 '되다'의 필수 논항
- ③ '아니다'의 필수 논항
 - '되다'와 '아니다'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필요로 한다.
 - '되다'는 불완전자동사, '아니다'는 불완전형용사이다.

그것은 만년필이 아니다.

광희가 벌써 교수가 되었다.

(고영근·구본관 2008 : 299)

2. 관형어의 구별과 성립

(1) 관형어의 개념과 구별

- ㉠ 어머니는 입학 선물로 새 구두를 한 켤레 주셨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자이다.
그 유명하던 그림이 기어이 도난당하고야 말았다.
본 대로 느낀 대로 써야 좋은 글이 된다.
최근 과학계는 김 박사의 플랑크톤 연구를 주목하고 있다.

(고영근·구본관 2008 : 302-303)

- 관형어는 명사 상당어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 다른 문장 성분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
-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수의적 성분이다.
- 의존명사 앞의 관형어와 서술성 명사 앞의 관형어는 수의적 성분이 아닐 수 있다.

(2) 관형어의 성립

- ㉡ 철수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어제 첫 눈이 왔다.
저 식당이 음식값이 싸다.
준수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어제 웬 여자가 너를 찾아왔더라.

어제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

마이클은 외국 학생이다.



서울의 지하철은 무척 편리하다.
 아기의 잠든 얼굴은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들은 흥범도 장군의 부하들이었다. - 그들은 흥범도 장군 부하들이었다.
 그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 그 소년 꿈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이 선생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학생을 맞이하십니다.
 기다리던 아들 소식에 어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이다.
 둘이 싸운 사실을 몰랐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다.
 광희가 지은 동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너는 인수가 지각한 사실을 몰랐느냐?
 가끔씩 하마가 물속으로 숨어 버리는 일도 있다.
 하루 종일 하늘만 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피아노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이곳에는 사람이 지나 간 흔적이 전혀 없다.
 노인이 짚으로 나무를 싸며 겨울 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온 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안 가는 대신 아들을 보내겠소.
 차나 한 잔 든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3) 관형격조사 ‘의’의 해석

㉠ 동생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3. 부사어의 구별과 성립

(1) 부사어의 개념과 구별

㉠ 오늘은 바다가 유난히 푸르다.
 철수는 영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아이들이 매우 시끄럽게 굴고 있다.
 그는 매우 단단하게 보인다.
 그 아이가 재주있게 생겼다.

(고영근·구본관 2008 : 310-311)



- 부사어는 서술어나(동사, 형용사), 부사어(부사)를 꾸민다.
-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다.
- 명사+와/과, 명사+에게, 명사+(으)로, 명사+에서, 명사+에 등의 형식을 취한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일 수 있다.
- 굴다, 보이다, 생기다와 같은 서술어 앞의 부사어들은 필수적 부사어이다.
- 부사어의 위치는 문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 부사어의 성립

㉠ 이리 와서 앉아라.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간다.
방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 것도 안 먹으니 걱정이 많다.
과제를 겨우 이틀 만에 완성하였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다.
그 옷은 나에게 맞지 않다.
어머니는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계속된 가뭄으로 굶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
이몽룡은 성춘향과 결혼하였다.

오늘은 바다가 유난히도 푸르다.
그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겼다.
철수는 영수에게도 메일을 보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그때 일을 회상했다.
나는 영수가 합격한 줄로 알았는데(-는 바람에, -는 김에)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아이가 재주가 있게 생겼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희를 재난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었다.
배 없이 건너기가 어렵다.
아우는 형과 같이 성실하다.
그 사람이 약속과 달리 기어코 나타나지 않았다.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른다.
 자네도 보다시피 일이 자꾸 꼬이고 있다.
 바깥이 잘 보이게 창을 활짝 열어라.
 그 두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뒤를 잘 보아 주어야 한다.

3. 독립어의 구별과 성립

예 아! 저기는 단풍의 바다로구나.
 예, 저도 가겠습니다.
 아서라, 그만 놀고 숙제나 하여라.

철수야, 빨리 학교에 가거라.
 겨레여, 잠에서 깨어나라.
 하느님이시여, 굶어 살피시옵소서.
 이군, 이리 와서 나 일 좀 도와주게.
 정 박사, 식사하러 나갑시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라.
 어느 나라 사람이나 먹는 것은 다 같다. 그러나 먹는 방법과 양식이 다르다.

청춘, 이는(/청춘이란) 말은 듣기만 하여도 피가 끓는다.
 돈, 그것의 힘이 엄청나다.
 충무공, 온 백성이 그를 안다. (cf. 충무공은 온 백성이 안다.)

(고영근·구분관 2008 : 315-320)

- 독립어에는 감동어, 호격어, 접속어, 지시어가 있다.
- 감동어는 독립된 문장이 이어지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
- 호격어나 감동어나 모두 문장에서의 위치가 자유롭다.
- 지시어는 특별한 조사가 붙는 일이 없는 명사구이고, 그 뒤에 주로 대명사가 온다.
- 접속어는 ‘또는, 혹은, 및’을 제외한 나머지 접속부사를 대상으로 설정된다.

제 11 차시

문장의 종류

개요

* 주제
문장의 종류

* 학습 목표
① 문장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을 숙지하고 구별할 수 있다.
② 각 문장의 종류를 표시하는 형태를 지적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뜻
②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형식

주요용어

1. 종결어미
- 종결어미란 문장을 종결짓는 자리에 오는 어미를 말한다. 문장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지만 결합되는 위치상으로 단어 끝이므로 어말어미로 분류된다.
2. 어말어미
- 어말어미란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를 말한다. 만약 어말어미가 결합한 단어가 문장 끝에 온다면 이 어말어미는 동시에 종결어미가 된다.
3. 선어말어미
-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학습하기

1. 문장의 종류와 의미

(1) 문장의 종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 수미가 책을 읽습니다.

수미가 책을 읽습니까?

(수미 씨) 책을 읽으십시오.

(수미 씨) 책을 읽읍시다.

(수미 씨) 책을 많이 읽는군요.

수미가 무엇을 읽습니까? - 수미가 책을 읽습니다.

수미가 누구를 만납니까? - 수미가 친구를 만납니다.

(2) 정의와 분류

① 문장의 수행 기능에 따른 분류

■ 화자가 청자에게 진술 : 평서문, 감탄문

■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 : 의문문

■ 화자와 청자 사이의 행동 요구나 약속 :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허락문, 경계문

② 정의

■ 평서문 : 화자가 청자에게 아무 요구 없이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혹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문장.

■ 감탄문 : 말하는 사람이 새로 알거나 느낀 것을 감탄하며 표현하는 문장.

■ 의문문 :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명령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 청유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자기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문장.

(3) 문장 유형의 문법적 성립

■ 문장 끝의 서술어에 결합하는 종결어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2. 문장의 형식

(1) 평서문

① 예문

저는 학생입니다. / 비가 와요. / 영화가 아주 재미있어.

우리는 잘 지내네. / 마이클이 한국말을 참 잘하지.



여기가 내가 태어난 집이요. / 날씨가 춥소.

나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② 어미

■ -ㅂ니다/습니다, -아요/-어요, -아/-어, -네, -지, -오, -소, -니다/-는다/-다

③ 어미 사용의 주의점 : 구어와 문어, 지위나 나이, 친분, 격식성

■ 글에서는 '-니다/-는다/-다'를 사용한다.

■ (연설이나 대화와 같은 말에서는) '-ㅂ니다/습니다'를 주로 사용한다.

㉠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 '-니다/-는다/-다'가 말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나 높임이 아니다.

㉠ 나 다음 주에 여행 간다.

나 다음 주에 여행 가.

■ 청자의 나이가 많거나 친숙하지 않을 때, '-ㅂ니다/습니다, 아요/-어요'

■ 청자의 나이가 화자와 같거나 적을 때, 아랫사람일 때, 상대를 조금 높여서 '-소' 또는 편하게 '-네, -지, -아/-어'

■ 스승이 나이든 제자에게,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오, -네, -소'.

■ 친구처럼 친한 관계에서는 '-아/-어'

■ 격식을 갖춘 높임은 '-ㅂ니다/습니다', 비격식의 높임은 '-아요/-어요'

㉠ 오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뭐 할 거예요?-회의에 참석할 거예요.

(2) 의문문

① 예문

㉠ 어느 회사에 다닙니까? / 무슨 신문을 봐요? / 오늘 날씨가 좋지요? / 여기에 언제 왔소? /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모두 왔나? / 뭐 해? / 매일 운동을 하니?

② 어미

-ㅂ니까/습니까, -아(요)/-어(요), -지(요), -소, -는가, -나, -니

③ 의문문의 종류

■ 설명의문문 : '누구, 무엇, 언제, 왜, 어떻게, 어느, 무슨, 어떤'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청에 어떻게 가요?



■ 판정의문문 :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저 영화 재미있어요?

민규는 나갔니?

■ 수사의문문 : 긍정이나 부정을 표현하는 의문 없는 의문문

예 이 책 읽을 수 있어요? - 내가 못 읽을 것 같아요?

■ 확인의문문 :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듣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의문문

예 호주에서 왔지요?

오늘 날씨 좋지?

■ 선택의문문 : 둘 이상의 선택 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대답하기를 구하는 의문문

예 영화 볼래, 테니스 칠래?

내일 모임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④ 어미 사용의 주의점 : 구어와 문어, 지위나 나이, 친분, 격식성

예 무슨 일을 합니까? /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 오늘이 영화 생일이지요? / 저 영화 재미있어? / 일요일에 마이클을 만났니? / 요즘 잘 지내고 있소? / 이제 다 모였나?

■ ‘-니’와 ‘-아/-어’의 차이

예 형, 저 영화가 재미있어?(o) 언니, 점심 먹었어?(o)

형, 저 영화가 재미있니?(?) 언니, 점심 먹었니?(?)

⑤ 의문문의 억양

예 저 영화 봤어요? / 날씨가 좋지요? / 이름이 뭐니까? / 어디에 사세요? / 커피를 드실래요, 주스를 드실래요?

(3) 명령문

① 예문

여기에 앉으십시오. / 안으로 들어오세요. / 잠깐만 기다려. / 많이 먹어라. / 죄인은 들으라. / 들어오시오. / 어서 돌아가게.

② 어미와 제약

■ ‘-(으)십시오, -(으)세요, -아/-어, -아라/-어라, -(으)라, -오, -게, -거라, -너라

■ 주어는 언제나 청자, 즉 이인칭

■ 서술어는 언제나 동사

■ ‘-았-/-었-/-였-’, ‘-더-’, ‘-겠-’은 명령문에 쓰일 수 없다.

■ 형용사가 명령문으로 쓰이는 한정된 경우

예 건강하게 사세요.(건강하세요.) / 행복해라.(행복하게 살아라.)



③ 어미 사용의 주의점 : 구어와 문어, 지위나 나이, 친분, 격식성

예 민수 씨 좀 바꿔 주십시오. / 기다리십시오. /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 앉으세요.
/ 나 좀 도와줘. / 다녀와라. / 건강히 잘 계시오. / 많이 들게. / 질문하십시오. / 질문하세요.

■ ‘-아/-어’와 ‘-아라/-어라’의 차이

예 엄마, 여기에 앉아.(o) 엄마, 여기에 앉아라.(?)

④ 구어 ‘-거라, -너라’

■ 가거라, 오너라로 쓰이나 현대국어에서는 가라, 와라로 쓰임.

■ 하거라, 오거라, 듣거라, 보거라, 읽거라 등으로 자주 사용됨.

■ ‘-너라’는 ‘오너라’에서만 쓰임.

⑤ 간접명령

■윗사람에게 명령할 수 없을 때, 정중하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문문이나 평서문의 형식을 사용한다.

예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 커피 드실래요? / 여기에 앉으시지요. /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⑥ 부탁과 명령

■ 한국어에서 부탁은 명령에 ‘-아/-어 주다’를 연결한 후 명령형 종결어미를 붙인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서울은행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

■ 청유형을 사용해서 부탁을 나타낸다.

예 내립시다. / 지나갑시다. /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4) 청유문 : 명령과 달리 화자와 청자 함께 하자는 뜻

① 예문

내일 만납시다. / 같이 영화 보러 가요. / 우리 내일 만나. / 지하철을 타자. / 같이 점심 먹으러 가세.

② 어미

-ㅂ시다/-읍시다, -아요/-어요, -아/-어, -자, -(으)세, -(으)시지요, -ㄴ까요/-을까요

■ 주어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우리’

■ 서술어는 항상 동사

■ ‘-았-/-었-, -더-, -겠-’은 청유문에 나타나지 못한다.

③ 어미 사용의 주의점 : 구어와 문어, 지위나 나이, 친분, 격식성

예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 좀 합시다. / 같이 점심 먹어요. / 먼저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 먼저 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저쪽으로 가시지요. / 나랑 이야기해. / 수영하러 가자. / 다음 달에 다시 만나세. / 엄마 오늘 나랑 밖에서 만나(자).



④ 청유형을 사용한 협조 및 요청

예 내립시다. / 지나갑시다. / 안으로 좀 들어갑시다.

(5) 감탄문

① 예문

이 빵 정말 맛이 있군요! / 마이클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네요! / 날씨가 아주 춥군! / 구두가 참 예쁘구나! / 산이 무척 높네! / 아이, 재미있어라!

② 어미

-(는)군요, -네요, -(는)구나, -(는)군, -네, -어라/-아라

■ 평서문으로 표현되는 감탄문은 ‘아주, 무척, 매우, 꽤, 정말, 굉장히’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임.

예 이 사과 정말 맛있다! / 와, 수전 씨의 한국말 실력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③ 어미 사용의 주의점 : 구어와 문어, 지위나 나이, 친분, 격식성

예 한국말을 아주 잘 하네요 / 무척 아름답군요 /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 열심히 일하는군. / 값이 많이 올랐네. / 어휴, 힘들어라. / 강아지가 아주 귀엽네.

제 12차시

문장의 연결 1

개요

* 주제
문장의 연결 1

* 학습 목표
① 문장 확대에 기여하는 어미의 목록을 말할 수 있다.
② 문장 확대에 기여하는 어미의 의미상 분류를 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어미의 목록
② 나열, 동시, 순서, 전환, 대립(대조), 이유(원인), 조건, 목적, 인정, 선택, 방법(수단), 배경의 연결

주요용어

1. 연결어미

- 연결어미는 단어의 끝에 결합한다. 그래서 단어 끝에 오는 어말어미로 분류한다. 연결어미가 결합된 단어는 문장의 종결부에 오는 것이 아니므로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이 없고, 따라서 어말어미 중 비종결어미에 해당한다. 이 어미가 결합된 단어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온다.

2.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 한 문장을 문장성분으로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 하고 다른 문장에 문장성분으로 참여한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학습하기

1. 문장 확대의 뜻과 방법

(1) 문장 확대

단문이 둘 이상 모여 복문이 되는 것. 또는 두 문장 이상이 연결되어 더 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그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준호는 학교에 갔어요.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린다.

■ 주부와 술부의 구별

■ 사건의 수를 센다.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횟수를 센다.

(2) 문장 확대의 방법

■ 문장 확대 : 두 문장 이상이 연결되어 더 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 문장 확대의 유형 : 문장의 연결형, 문장의 안김형

■ 한국어에서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말을 쓰려면 문장이 종결되어야 함.

■ 문장을 종결짓지 않고 다른 문장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한국어는 어미를 활용함.

■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처럼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복합표현도 사용 가능함.

2. 문장을 연결하는 어미 목록

-고, -(으)며, -(으)면서, -(으)면, -자마자, -고, -아서/-어서, -다가, -(으)나, -지만, -는데 /-(으)는데, -아도/-어도,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으)면, -(으)려면, -아야 /-어야, -(으)러, -(으)려고, -도록, -게,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거나, -든지, -아서/-어서, -고, -는데/-(으)는데, -(으)니 등

예 바람이 불고 눈이 옵니다.

마이클은 미국 사람이며 소냐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니다.

소냐는 러시아 사람이며 마이클은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산을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았다.
 그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눈이 그치자마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학교로 갔다.
 아버지께서 옷을 벗어서 벽에 거셨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갔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로 갔다.
 그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
 해원이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녁을 먹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
 해원이는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설탕은 물에 잘 녹으나 기름은 잘 녹지 않는다.
 형은 돌아왔지만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설탕은 물에 잘 녹지만 기름은 잘 녹지 않는다.
 형은 돌아왔으나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해연이는 춤은 잘 못 추는데 노래는 잘 부른다.
 동건이는 공부는 잘해도 운동은 못한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이 옷은 좀 작으니 큰 것으로 바꿔 주세요.
 그렇게 잠만 자니까 살만 찐다.
 이 물건은 부피가 크지 않으므로 휴대하기 쉬울 겁니다.
 늦잠을 자느라고 지각을 하고 말았다.
 이번에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핸드폰을 사 주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알려면 먼저 범인을 잡아야 한다.
 꽃이 피어야 꽃구경을 가지.
 숙제를 하러 친구 집에 가요.
 살을 빼려고 굶는 중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잘 자라게 시간에 맞춰 물을 주어야 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더라도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는 키가 작아도 체력은 좋다.
 그 아이는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생각은 깊다.
 아무리 동생이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일요일에 혼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봅니다.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결정을 하자.
 산으로 가든가 바다로 가든가 결정을 하자.
 밥을 먹거나/든지 빵을 먹거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거나/든지 피아노거나/든지 모두 팔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이 동네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간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고 당부하셨다.
 계란은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손님이 오시는데 뭘 준비하죠?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해라.
 집에 와 보니 아무도 없더라.

3. 문장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

- (1) 연결된 두 문장이 가리키는 사태가 어떤 의미 관계를 갖지 않고 단순히 연결되어 순서가 바뀌어도 무리가 없는 경우 : 나열
- (2) 연결된 두 문장이 가리키는 동작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나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때 : 동시
- (3) 연결된 두 문장에서 그 중 한 문장이 가리키는 행위가 먼저 일어났고 다른 문장의 행위가 그 뒤에 일어난 것일 때 : 순서
- (4) 연결된 두 문장에서 그 중 한 문장이 가리키는 행위가 진행되어 가는 도중인데, 그 다음 문장이 다른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 전환
- (5) 연결된 두 문장의 내용이 일정한 기준으로 볼 때 서로 상반되는 경우 : 대립, 대조
- (6) 연결된 두 문장 중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 되고 뒤 문장은 그로 인한 결과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될 때 : 이유, 원인
- (7) 연결된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될 때 : 조건
- (8) 연결된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고 뒤 문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될 때 : 목적
- (9) 연결된 두 문장 중 앞 문장은 지금 또는 미래의 상황이나 조건을 인정하고 뒤 문장에서는 의미상 그에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할 때 : 인정
- (10) 연결된 두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선택할 수 있을 때 : 선택



- (11) 연결된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가리키는 내용이 다른 한 문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될 때 : 방법, 수단
 (12) 연결된 두 문장 중 뒤 문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연관되는 상황이나 배경을 앞 문장에서 미리 말할 때 : 배경

4. 연결어미의 분류

- (1) 나열 : -고, -(으)며
 (2) 동시 : -(으)면서, -(으)며, -자마자
 (3) 순서 : -고, -아서/-어서
 (4) 전환 : -다가
 (5) 대립·대조 : -(으)나, -지만, -는데/-(으)는데, -아도/-어도
 (6) 이유·원인 :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7) 조건 :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8) 목적 : -(으)러, -(으)려고, -도록, -게
 (9) 인정 :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10) 선택 : -거나, -든지
 (11) 방법·수단 : -아서/-어서, -고
 (12) 배경 : -는데/-(으)는데, -(으)니

제 13차시

문장의 연결 2

개요

* 주제
문장의 연결 2

* 학습 목표

- ① 문장을 연결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말할 수 있다.
- ② 확대된 문장에서 연결어미를 분석해 내고 연결유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문장 종류 제약, 부정문 제약
- ② 나열, 동시, 순서, 전환, 대립(대조)의 연결

주요용어

1. 문장 연결에서 나열

두 문장이 연결된 관계가 '나열'이라는 것은 둘이 시간적으로나 인과적으로나 의미상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나열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법은 세상 지식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문장 연결에서 동시

동시라고 해도 연결된 두 문장의 사건이 완벽하게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건이 마침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도 '동시'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학습하기

1. 문장 연결에서의 제약

(1)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 ‘-겠-’

- ㉠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 ㉡ 아빠가 출장을 가셨다. 엄마는 일주일 동안 나랑만 지냈다.
아빠가 출장을 가셔서 엄마는 일주일 동안 나랑만 지냈다.
아빠가 출장을 가셨어서 엄마는 일주일 동안 나랑만 지냈다.
- ㉢ 나는 칼국수를 먹고 해연이는 비빔밥을 먹었다.
나는 칼국수를 먹었고 해연이는 비빔밥을 먹었다.
- ㉣ 이 소설은 잘 팔리겠다. 저 소설은 잘 안 팔리겠다.
이 소설은 잘 팔리겠지만 저 소설은 잘 안 팔리겠다.
이 소설은 잘 출판될 것이다. 이 소설은 잘 팔리겠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잘 팔리겠다.

이 소설은 출판되겠자마자 잘 팔리겠다.

(2) 주어 제약

- ㉤ 나는 등산은 좋아하지만 (나는) 수영은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영화를 보러 갔지만 나는 집에 있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는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결혼한다고 하자 식구들이 모두 기뻐했다.
형이 결혼한다고 하자 () 기뻐했다.

(3) 서술어 제약

- ㉥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도 잘하게 될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놀아요.
오늘이 토요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훌륭한 과학자이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4) 문장의 종류 제약

- ㉠ 더우니까 창문을 열자.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라.
더워서 창문을 열자.
더워서 창문을 열어라.

(5) 부정문 제약

- ㉠ 그는 숙제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그는 숙제를 하지 않느라고 잠을 못 잤다.

2. 두 문장의 단순 나열 : -고, -(으)며, -자, -자마자

(1) 시제 제약

- ㉠ 나는 노래를 부르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나는 노래를 불렀고 동생은 춤을 추었다.
나는 TV를 보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나는 TV를 보았으며 친구는 라디오를 들었다.
- ㉠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불겠으며 비도 내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고/있겠으며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내년이면 나는 스무 살이 되고/되며, 큰형은 서른 살이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큰 집도 사고/사며 좋은 차도 사겠다.

(2) 주어 제약

- ㉠ 나의 친구는 선원이고/선원이며 그의 아내는 학교 선생이다.
강은 맑고/맑으며 하늘은 푸르다.
우리는 노래도 부르고/부르며 춤도 췄다.
그녀는 눈이 크고/크며 아름답다.

(3) 서술어 제약

- ㉠ 비가 오고/오며 바람이 분다.
그의 아들은 착하고 착하며 똑똑하다.
그는 선생이고/선생이며, 그의 아내는 주부이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사과도 먹고 배도 먹자/먹어라.
사과도 먹으며 배도 먹자/먹어라.



(5) 부정문 제약

- ㉠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뭐하는 거니?
봄이 왔는데 꽃도 안 피며 나비도 안 난다.

3. 연결된 두 문장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 -(으)면서, -(으)며

(1) 시제 제약

- ㉠ 해림이는 피아노를 쳤으면서/쳤으며 노래를 불렀다.
해림이는 피아노를 치면서/치며 노래를 불렀다.
집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집을 막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책은 출판이 됐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 책은 출판이 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집을 막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집을 막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책은 출판이 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다.
그 책은 출판이 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릴 것이다.

(2) 주어 제약

- ㉠ 철수는 커피를 마시면서/마시며 영희는 이야기를 했다.
수정이는 피아노를 치면서/치며 현교는 노래를 불렀다.
열이 나면서/나며 머리가 지끈거린다.
비가 오면서/오며 바람도 세차게 분다.
이 물건은 값이 싸면서/싸며 품질이 좋다.
철수는 집을 막 나서자 (철수는) 학교로 갔다.
철수가 집을 막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철수는 집을 막 나서자마자 (철수는) 학교로 갔다.
철수가 집을 막 나서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3) 서술어 제약

- ㉠ 나의 어머니는 상냥하시면서/상냥하시며 (동시에) 차분하시다.
그 물건은 값도 싸면서/싸며 (동시에) 품질도 좋다.
그는 의사이면서/의사이며 (동시에) 시인이다.

집을 막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이자 (동시에) 시인이다.
나의 어머니는 상냥하시자 (동시에) 차분하시다.



집을 막 나서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는 상냥하시자마자 (동시에) 차분하시다.
 그는 의사이자마자 (동시에) 시인이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차 한 잔 하면서/하며 이야기해라.
 피아노를 치면서/치며 노래하자.
 피아노를 치면서/치며 노래할래?

학교에 오자마자 곧장 교무실로 오너라.
 학교에 가자마자 곧장 교무실로 가자.
 학교에 오자마자 곧장 교무실로 올래?

밥을 먹자 곧장 학교로 오너라.
 밥을 먹자 곧장 학교로 가자.
 밥을 먹자 곧장 학교로 올래?

(5) 부정문 제약

- ㉠ 집을 안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학교에 안 가자마자 교무실로 갔다.

우리는 커피를 안 마시면서/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않으며 저녁을 먹었다.

4. 두 문장이 시간의 순서대로 연결된 경우 : -고, -아서/-어서

(1) 시제 제약

- ㉠ 나는 세수를 했고 아침을 먹었다.
 나는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아버지는 옷을 벗었어서 벽에 거셨다.
 아버지는 옷을 벗어서 벽에 거셨다.

나는 세수를 하겠고 아침을 먹겠다.
 나는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겠다.
 아버지는 옷을 벗겠어서 벽에 거실 것이다.



아버지는 옷을 벗어서 벽에 거실 것이다.

(2) 주어 제약

- ㉠ 내가 (먼저)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수가 세수를 했다.

(3) 서술어 제약

- ㉠ 옆집 아줌마는 심술궂고 약삭빠르다.
그 사람은 축구 선수이고 자선 사업가이다.

나는 슬피서 울었다.

그 사람은 의사이어서 부자이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어라.
세수를 아침을 먹자.

옷을 벗어서 벽에 걸어라.

옷을 벗어서 벽에 걸자.

(5) 부정문 제약

- ㉠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아침에 안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6) ‘-고’와 ‘-아서/-어서’의 차이

- ㉠ 옷을 벗고 누웠다. / 옷을 벗어서 누웠다.
옷을 벗어서 걸었다. / 옷을 벗고 걸었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 고생 안 하고 번 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 고생해서 번 돈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부쳤다. / 돈을 주워서 (그 돈을) 지갑에 넣었다.

편지를 쓰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 지갑에 돈을 넣고 옷을 입었다.

그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 밖에 나가서 놀자.



5. 연결된 두 문장에 나타난 행위가 전환의 관계에 있을 때 : -다가

(1) 시제 제약

- ㉠ 나는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가다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2) 주어 제약

- ㉠ 광원이는 밥을 먹다가 해솔이가 밖으로 나갔다.
영수가 학교에 갔다가 현교가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네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편찮으신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사업을 한다.
조금 전까지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

(3) 서술어 제약

- ㉠ 교실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어수선했졌다.
그는 오랫동안 씨름 선수이었다가 갑자기 농구 선수가 되었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이쪽으로 쪽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잠 쉬다가 일하자.

(5) 부정문 제약

- ㉠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 힘이 든다.
지금까지 회비를 내지 않다가 이제 내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6. 연결된 두 문장이 대립 및 대조를 이룰 때 : -(으)나, -지만, -는데/-(으)는데, -아도/-어도

(1) 시제 제약

- ㉠ 점심은 먹으나 배는 여전히 고했다.
점심은 먹었으나 배는 여전히 고했다.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나 자신은 없다.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겠으나 자신은 없다.
서울에는 눈이 오는데 부산에는 비가 왔다.
서울에는 눈이 왔는데 부산에는 비가 왔다.



그는 떠나도 내 마음엔 그가 남아 있다.
그는 떠났어도 내 마음엔 그가 남아 있다.

당신이 떠나겠어도 당신은 내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신이 떠나도 당신은 내 마음에 남아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 하겠는데 마땅한 신랑감이 없다.
영어 시험은 잘 볼 수 있겠는데 수학 시험은 자신이 없다.

(2) 주어 제약

- ㉠ 영수는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갔으나 (영수는)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다.
민수는 농구는 잘하는데/잘해도 (민수는) 축구는 잘 못한다.
봄은 왔지만/왔으나, 꽃은 피지 않는다.
영수는 자는데 민수는 안 잔다.
눈은 내려도 날씨는 따뜻하다.

(3) 서술어 제약

- ㉠ 옛날에는 잘 살았으나/살았지만/살았는데/살았어도 지금은 가난합니다.
그는 마음씨는 착하나/착하지만/착한데/착해도 고집이 좀 세다.
그는 어른이나/어른이지만/어른인데/어른이어도 아이만 못하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형은 집에 갔지만/갔어도 우리는 여기서 계속 놀자.
형은 유학을 갔지만/갔어도 너는 가지 마라.

형은 집에 갔으나/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놀자.
형은 유학을 갔으나/갔는데 너는 가지 마라.

(5) 부정문 제약

- ㉠ 아직 봄은 안 왔으나/왔지만/왔는데/왔어도 꽃들은 피었다.
그 사람은 돈은 못 벌었으나/벌었지만/벌었는데/벌었어도 자식 교육은 성공했다.

제 14차시

문장의 연결 3

개요

* 주제
문장의 연결 3

* 학습 목표

- ① 문장을 연결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말할 수 있다.
- ② 확대된 문장에서 연결어미를 분석해 내고 연결유형을 말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시제 제약,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문장 종류 제약, 부정문 제약
- ② 이유·원인, 조건, 목적, 인정, 선택, 방법(수단), 배경

주요용어

1. 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가리켜 원인이라고 한다.

2. 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이유라고 한다. 또 구실이나 변명도 이유라고 한다. 철학에서는 존재의 기초가 되거나 어떤 사상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는 결론에 대한 전제,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학습하기

1. 연결된 두 문장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1) 시제 제약

- ㉠ 편지를 보내주었어서 고마워.
편지를 보내 주어서 고마워.
네가 편지를 보내 주겠어서 고마울 거야.
늦잠을 잤느라고 지각을 하고 말았다.
늦잠을 자느라고 지각을 하고 말았다.
늦잠을 자겠느라고 지각을 할 거야.

(2) 주어 제약

- ㉠ 내가 떠드느라고 내가 선생님한테 혼났잖아.
비가 오느라고 우리는 버스를 탔다.

(3) 서술어 제약

- ㉠ 누나는 예쁘느라고 매일 정신이 없다.
삼촌은 사업가이느라고 항상 늦으신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날씨가 추우니/추우니까 옷을 입자.
날씨가 추우니/추우니까 옷을 입어라.

날씨가 추워서/추우므로 옷을 입자.
날씨가 추워서/추우므로 옷을 입어라.

늦잠을 자느라고 지각을 하자.
늦잠을 자느라고 지각을 해라.

(5) 부정문 제약

- ㉠ 사람들이 아직 다 안 왔으니/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나는 춤을 못 춰서 그 모임에 못 가.
이 음료는 건강에 나쁜 색소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나는 숙제를 안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숙제를 하느라고 일찍 일어났다.
 숙제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cf) 아들 학비를 대느라고 아버지는 시골 땅을 다 팔았다.
 영업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 목적의 의미로 ‘-느라고’는 쓰이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나 ‘-느라고’다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유·원인을 대신하는 표현 : ‘-기에, -기 때문에’

- ㉠ 형이 만두가 맛있어 보이기에 사 왔다.
 형이 만두가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 왔다.

2. 연결된 두 문장 중 앞 문장이 다른 문장의 조건이 될 때

-(으)면, -(으)려면, -아야/-어야

(1) 시제 제약

- ㉠ 그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그런 오해가 안 생겼지.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그런 오해가 안 생겼지.
 성공했으려면 성실하게 일했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대학에 들어가겠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으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약속을 못 지키겠으면 미리 말해라.

(2) 주어 제약

- ㉠ (어르신께서) 빨리 가시려면 제가 택시보다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께서) 빨리 가시려면 (어르신께서) 택시보다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3) 서술어 제약

- ㉠ 노래를 잘 부르면 상을 주마.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자.
 학생이면 할인해 드립니다.
 노래를 잘 불러야 상을 탈 수 있다.



날씨가 좋아야 소풍을 가지.
 모범생이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얼음이 얼려면 날씨가 추워야 한다.
 얼굴이 예쁘려면 마음이 착해야 한다.
 키 큰 사람이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꽃이 피어야 꽃구경을 가자.
 꽃이 피어야 꽃구경을 가라.
 꽃이 피어야 꽃구경을 갈래?
 너는 내가 죽어야 정신 차리겠니?

(5) 부정문 제약

- ㉠ 네가 안 떠나면 내가 떠나마.
 꽃을 죽이지 않으려면 물을 제 때에 주어야 한다.
 밥을 안 먹어야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3. 두 문장 중 하나가 목적이 될 때 : -(으)러, -(으)려고, , -도록, -게

(1) 시간 제약

- ㉠ 숙제를 했으러 친구 집에 갔어요.
 숙제를 하겠으러 친구 집에 갈 거예요.
 살을 뺏으려고 굶었어요.
 살을 빼겠으려고 굶을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도록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겠도록 음식을 맛있게 만들 거예요.

(2) 주어 제약

- ㉠ 승현이가 숙제를 하러 유정이가 도서관에 갔다.
 해림이가 밥을 먹으려고 광원이가 밥상을 차렸다.
 비가 오러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엄마가 설 수 있도록/있게 아이들이 자리를 펴 드렸다.
 바람이 들어오도록/들어오게 해연이가 창문을 열었다.



(3) 서술어 제약

- ㉠ 안 아프러 병원에 다닌다.
빠르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는 건강하도록 열심히 운동했다.
한국어 선생님이러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 선생님이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 선생님이도록 공부해요.

아버지는 밤 늦도록/늦게 일하셨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 숙제를 하려고 도서관에 가자.
숙제를 하려고 도서관에 가라.

(5) 부정문 제약

- ㉠ 그 아이는 약을 안 먹으려고 도망을 갔다.
해림이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숙제 안 하러 도서관에 갔다.
그는 도서관에 숙제하러 가지 않았다.

(6) ‘-(으)러’+ 가다, 오다, 다니다, 달려오다, 돌아오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 ㉠ 그는 공부하러 책을 샀어요.
해림이는 서울에 가러 기차역에 왔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려 인사를 했다.

4. 둘 중 한 문장의 상황이나 조건을 인정하지만 그 다음 문장의 상황이나 조건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올 때 : -아도/-어도, -(으)르더라도, -더라도

(1) 시제 제약

- ㉠ 내가 옳았어도 참았어야지.
결혼을 안 했을지라도 그 나이 정도면 대접을 해 줘야지.
그 일은 누가 했더라도 마찬가지야.
그가 오겠어도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꽃이 지겠을지라도 나는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은 누가 하겠더라도 마찬가지야.



(2) 주어 제약

- ㉠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가 널 도와줄 것 같으니?
그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나는 그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꼭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서술어 제약

- ㉠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아니라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 모두 잘 어울림.

(5) 부정문 제약 : 모두 잘 어울림.

(6) ‘아무리, 비록’같은 말과 잘 어울림.

(7) ‘-(으)ㄴ망정, -(으)ㄴ지언정, -건만’ 등

- ㉠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일망정 역사는 오래되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일만은 못 하겠다.
남편이 떠났건만, 아내는 울지 않았다.

5. 연결된 두 문장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하는 과제일 때 : -거나, -든지

(1) 시제 제약

- ㉠ 그가 나를 믿거나/믿든지 안 믿거나/믿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가 나를 믿었거나/믿었든지 안 믿었거나/믿었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가 나를 믿겠거나/믿겠든지 안 믿겠거나/믿겠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가 나를 믿거나/믿든지 안 믿거나/믿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2) 주어 제약

- ㉠ 꽃이 피거나/피든지 나비가 날거나/날든지 하여야 봄이 온 줄 알지.
너는 떡을 먹거나/먹든지 빵을 먹거나/먹든지 해라.

(3) 서술어 제약 없음.

(4) 문장의 종류 제약 없음.

(5) 부정문 제약 없으나 긍정문이 먼저 옴.

- ㉠ 그가 나를 안 믿거나 믿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밥을 안 먹든지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6) ‘-거나, -든지’가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 ‘하다’

- ㉠ 그들은 남은 시간에 신문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한다.
너는 남아 있든지 떠나든지 해라.

6. 연결된 두 문장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 : -아서/-어서, -고

(1) 시제 제약

- ㉠ 그 신혼부부는 비행기를 탔고 신혼여행을 갔다.
그 신혼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다.
해림이는 걸었어서 학교에 갔다.
해림이는 걸어서 학교에 갔다.

그 신혼부부는 비행기를 타겠고, 신혼여행을 갈 것이다.
 그 신혼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갈 것이다.
 해림이는 걷겠어서 학교에서 갈 것이다.
 해림이는 걸어서 학교에 갈 것이다.

(2) 주어 제약

- ㉠ 그 신혼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노부부는 여행을 갔다.
해림이는 걸어서 해연이는 학교에 갔다.

(3) 서술어 제약

- ㉠ 그는 닭을 키워서 큰 부자가 되었다.
영수는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동생은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이 많다.
동생은 성격도 좋고 키도 크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어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

(4) 문장의 종류 제약 없음.

(5) 부정문 제약 : 방법이나 수단을 달리한다는 뜻으로 가능.

- ㉠ 그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제주도에 갔다.
계란은 삶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은 닭을 키우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다.



7. 연결된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배경이 될 때 : -는데/-(으)는데, -(으)니

(1) 시제 제약

- ㉠ 지난 주에 학회가 열리는데 참석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지난 주에 학회가 열렸는데 참석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다음 주에 학회가 열리겠는데 참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다음 주에 학회가 열리는데 참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배고파 죽겠는데/미치겠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다.
이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잠에서 깨어 일어났으니 벌써 12시가 넘었더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으니 벌써 12시가 넘을 거야.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 벌써 12시가 넘었더라.

(2) 주어 제약 없음.

(3) 서술어 제약

(4) 문장의 종류 제약

- ㉠ 백화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백화점에 가려고 하는데 빨리 준비해라.

방도 좁은데 짐을 많이 가져가지 말자.
방도 좁은데 짐을 많이 가져가지 마라.

우리가 집에 들어와 보니 너는 자자.
우리가 집에 돌아와 보니 너는 자라.

(5) 부정문 제약

- ㉠ 영수는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
집에 안 들어와 보니 집이 엉망이더라.
요새는 모임에 잘 안 나가니 동창들 소식을 모르겠다.

(6) '-아서/-어서, -는/-(은)ㄴ 동안, -(으)ㄴ 때' 등 배경의 의미를 갖는 말.

- ㉠ 그 두 자매는 어려서 영국에서 살았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설을 한 권 읽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제 15차시

문장의 안김 1

개요

- * 주제
문장의 안김 1
- * 학습 목표
 - ① 문장의 안김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②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 학습 내용
 - ① 문장의 안김
 - ②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의 개념

주요용어

1. 안은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으로서 그 문장에서 성분으로서 절을 가진 문장을 말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문장인데 전체 문장 안에 성분으로 참여해 있다.
2. 안긴문장
안은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 위의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안긴 문장이다.



학습하기

1. 문장의 안김

(1) 개념

한 문장이 일정한 문장 성분의 구실을 하면서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

예 영수가 시험에서 우승을 하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나는 영수가 시험에서 우승을 한 사실을 알았다.

■ 안은문장 :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 안긴문장 : 영수가 시험에서 우승을 하였다.

(2) 안긴문장의 종류 :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

(3) 부사절에 대하여

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아버지는 창문을 여셨다.

■ ‘-이’의 정체 불명

■ 안긴문장으로서 부사절을 위치만 바꾸면 이어진문장이 것처럼 됨.

■ 이어진문장도 위치를 바꿈으로써 부사절과 구별이 모호함.

■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직관이 부재하므로 문법표지가 모호한 경우 굳이 구분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 부사절은 이어진문장으로 취급하여 안긴문장의 분류에 넣지 않음.

2. 명사절의 개념

(1)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절

예 [이 문제]는 어렵다.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다.]는 어렵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나는 [그가 떠났다.]을 알았다.

■ 절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 절이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변형이 필요하다.



(2) 명사의 다양한 역할

- 명사의 문장에서의 주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어이다.
- 다른 성분으로 쓰일 것 같으면 다른 표지가 필요하다.
- ‘-이다’와 결합하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3) 명사절의 다양한 역할

-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외의 다른 문장 성분이 되는 것과 같이
- 명사절도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4) 명사절을 성립시키는 전성어미

- -(으)ㄴ, -기

3. 관형사절의 개념

(1) 관형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절

- ㉠ 우리는 [그]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순희가 지난달에 시집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누나는 [새] 옷을 샀다.
누나는 [비싼] 옷을 샀다.
누나는 [색깔이 빨간] 옷을 샀다.

(그) 옷은 비싸다. 누나는 (그) 옷을 샀다.
(그) 옷은 색깔이 빨강다. 누나는 (그) 옷을 샀다.

(2) 관형사의 단일한 역할

-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는 준자립형식
- 문장 내에서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표지가 결합할수 없다.

(3) 관형사절을 성립시키는 어미

- -는, -은, -(으)ㄴ, -던, -았던/-었던, -던, -았던/-었던, -(으)ㄴ
- 원래 분리되어야 할 형태들이 합쳐진 것은 교육적 목적에 의한 변용

4. 인용절의 개념

(1) 자신이나 남의 말, 글 또는 생각이나 판단 따위를 옮겨 표현한 것.

- ㉠ 영미가 나에게 “민수가 어제 군대 갔어.”라고 말했다.
나는 마이클에게 한국어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어머, 여기 꽃이 피었네.” 하고 외쳤다.
그 책에는 “미국의 수도는 런던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다/판단했다.
나는 그가 범인이라고 믿는다/확신한다.
나는 이제 봄이라고 느낀다.
바로 그때 “짱!” 하고 번개가 쳤다.
누나는 뱀을 보자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2) 인용절의 종류

- 말을 옮겨 와 문장 안에 포함시킨 것
 - ㉠ ‘말하다, 묻다’가 서술어로서 인용절을 안았을 때
- 글을 옮겨 와 문장 안에 포함시킨 것
 - ㉡ ‘쓰다 적다’가 서술어로서 인용절을 안았을 때
- 생각이나 판단을 옮겨와 문장 안에 포함시킨 것
 - ㉢ ‘생각하다, 판단하다, 믿다, 확신하다, 느끼다, 추측하다, 결심하다, 상상하다’ 등이 서술어로서 인용절을 안았을 때

(3) 인용절을 성립시키는 조사와 서술어

- 인용절의 형식 : 조사+서술어
- 인용절을 성립시키는 조사: ‘(이)라고, 고, 하고’
- 인용절을 성립시키는 동사
‘말하다, 묻다, 명령하다, 설명하다, 보고하다, 신고하다, 외치다, 떠들다, 이르다, 꾸짖다, 예언하다, 제안하다, 대답하다, 쓰다, 적다, 기록하다’ 등

제 16차시

문장의 안김 2

개요

* 주제
문장의 안김 2

* 학습 목표
① 명사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관형사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명사절 분석
② 관형사절 분석

주요용어

1. 전성어미

용언의 어간 뒤에서 나타나는 어미로 용언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미이다.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 부사 전성 어미 등이 있으나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부사 전성 어미를 생략하고 있다.

2.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나타나는 어미로 용언이 있는 그 문장을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이다.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모두 어말어미이다.



학습하기

1. 명사절 분석

(1) 명사절의 성립

- ① 명사형 전성어미 : -(으)ㄴ, -기
- ②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
- ③ -느냐/-(으)냐, -는지/-(으)는지, -는가/-(으)는가

- 예 [그가 한국을 떠났음]이 분명하다.
 그는 [내가 어리석었음]을 지적했다.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지구가 둥근 것]은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나는 [내가 실수한 것]을 몰랐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자.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 관형사형 전성어미 + 것

- 구어에서 ‘-(으)ㄴ’을 대신하는 일이 많다.
- 예 [그가 한국을 떠났음]이 분명하다.
 [그가 한국을 떠난 것]이 분명하다.
 그는 [내가 어리석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내가 어리석었던 것]을 지적했다.

(3) -(으)ㄴ

- ① ‘-(으)ㄴ’과 잘 어울리는 서술어 :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동사나 형용사
 - 형용사 :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중요하다, 마땅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상하다, 옳다, 어리석다, 등
 - 자동사 : 알려지다, 드러나다, 밝혀지다, 등
 - 타동사 : 보다, 발견하다, 듣다, 알다, 알리다, 밝히다, 깨닫다, 모르다, 기억하다, 짐작하다, 발표하다, 주장하다, 지적하다, 보고하다, 등
 - 기타 : 사실이다, 잘못이다, 등



②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 선생님께 갑자기 오심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음이 분명하다.

③ ‘-(으)ㄴ’의 의미

- 이미 이루어졌거나 결정되어 있는 일에 많이 사용됨.

(4) -기

① ‘-기’와 잘 어울리는 서술어 : 인식과는 거리가 먼 동사 또는 형용사

- 형용사 : 적합하다, 적당하다, 알맞다, 쉽다, 어렵다, 좋다, 싫다, 괴롭다, 힘들다, 지루하다, 등
- 타동사 : 좋아하다, 싫어하다, 두려워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빌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그치다, 시작하다, 약속하다, 결심하다, 약속하다, 제안하다, 등
- 기타 : 일쑤이다, 십상이다, 예사이다, 등

② 시제의 제약 : 시제 어미와 함께 사용하기 곤란

- ㉠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빠져나왔기가 쉽지 않았다.

③ ‘-기’의 의미

-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나 동작의 과정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일에 많이 사용됨.

④ ‘-기’를 활용한 관용적 표현

- ‘-기 마련이다, -기를, -기(가) 이를 데 없다, -기 위하여, -기 전에’
- ㉠ 사람은 고생하기 마련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영미는 마음씨가 곱기(가) 이를 데 없다.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

(5) ‘-(으)ㄴ’과 ‘-기’ 대조

- ㉠ 그의 떠나기(x)를/떠나감(o)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했다.
나는 내가 실수했기(x)를/실수했음(o)을 깨달았다.
그가 일등을 하였기(x)/하였음(o)이 확실하다.

비가 올(x)을/오기(o)를 기다린다.
영어는 배움(x)이/배우기(o)이 어렵다.
요즈음은 등산함(x)/등산하기(o)에 적합한 계절이다.



2. 관형사절 분석

(1) 관형사절의 성립

①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같은 경우

예 저기서 신문을 읽는 사람이 누구니?

저기 가는 아이는 내 친구야.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사 주세요.

깊은 물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민수는 고등학교 동창인 광원이를 만나고 있다.

-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다른 경우

예 아침에 지하철에서 조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샀다.

어제 의사인 친구를 만났어요.

②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 동사 + -(으)ㄴ, -던, -았던/-었던

- 형용사, 이(다) + -던, -았던/-었던

예 나는 어제 저녁을 먹은 후에 바로 잤다.

그 애는 조금 전까지 읽던 책을 덮어 버렸다.

이 영화는 작년에 보았던 건데...

어제까지 따뜻하던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옛그제만 해도 경찰이던 사람이 왜 갑자기 군복을 입고 있지?

즐거웠던 시간이 다 가 버렸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③ 미래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ㄹ’

- 미래의 의미

예 내일 내가 입을 옷을 챙겨 줄래?

엄마는 네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남자가 너와 결혼할 사람이니?

- 의지, 추측, 추정

예 내년에는 꼭 해외여행을 갈 거야.

그 사람도 나를 믿을 거야.

승희는 크면 (아마) 참 예뻐 거야.

내일 우리 집에 선물을 가지고 오실 분은 (분명히) 그일 거야.



■ ‘-았-/-었-’과 추정

- 예 그때 나는 아마 울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아주 귀여웠을 것 같네요.
그때 나는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 ‘때, 뿐, 뻔, 기회, 자신, 정도, 가능성’은 미래와 무관

- 예 어린 때는 오사카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오사카에서 살았어요.
큰일 난 뻔한 적이 있었어요.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오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 올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으)르’+‘것, 줄’

- 예 앞으로 착할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그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일 사람이에요.
내일은 무척 더울 거야.
한복이 이렇게까지 고을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범인일 줄이야.

(2) 관형사절의 종류

① 공통되는 요소가 있는 두 문장의 결합

- 예 나는 어제 자전거를 샀다.
나는 그 자전거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 나는 어제 산 자전거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② 공통되는 요소가 없는 두 문장의 결합

- 예 나는 어제 자전거를 샀다.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안다.
→ 친구들은 내가 어제 자전거를 산 사실을 안다.

■ 긴 동격 관형사절 : 종결어미를 유지한 채 ‘-는’을 붙임.

- 예 나는 그가 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 짧은 동격 관형사절 : 종결어미를 관형사형으로 바꿈.

- 예 나는 그가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온다는 것을 보았다.



- 긴 동격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
소문, 소식, 말, 주장, 단언, 약속, 보고, 보도, 보장, 명령, 고백, 요청, 생각, 느낌, 견해, 이론, 연락, 질문, 독촉 등
- 짧은 동격 관형사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
사건, 기억, 경험, 용기, 예정, 경우, 가능성, 까닭, 등
줄, 바, 수, 리, 듯, 양, 체, 만, 법, 성, 등
- 둘 다의 꾸밈을 받는 명사 : 사실, 약점, 욕심, 결심, 목적 등
 - ㉠ 나는 그가 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그가온다는 사실을 몰랐다.

(3) ‘-(으)ㄴ, -던, -았던/-었던’의 의미

- 완료된 행위나 상태
 - ㉠ 이 책은 내가 읽은 것이다.
- 미완료된 행위나 상태, 지속·반복되던 행위나 상태
 - ㉠ 이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그 성은 옛날에 임금님이 살던 곳이에요.
그 옷은 전에 엄마가 사 주던 것이다.
- 완료된 행위나 상태, 지속·반복되던 행위나 상태,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행위나 상태
 - ㉠ 그 성은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책은 내가 읽었던 책이다.
그 옷은 전에 엄마가 사 주었던 것이다.

(4) ‘적, 후, 뒤’와 과거시제 관형사형 전성어미

- ㉠ 김치를 먹어 보는 적은 처음이에요.
김치를 먹어 볼 적은 처음이에요.
김치를 먹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친구가 떠나는 후/뒤에 많이 슬펐어요.
친구가 떠날 후/뒤에 많이 슬펐어요.
친구가 떠난 후/뒤에 많이 슬펐어요.

제 17 차시

문장의 안김 3

개요

* 주제
문장의 안김 3

* 학습 목표
① 인용절의 종류를 들고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② 간접인용에서 문장에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직접인용절, 간접인용절
② 문장 형식별로 간접인용에서 겪는 변화

주요용어

1. 인용

인용의 상식적인 의미는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문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서 볼 부분은 ‘자신의 말이나 글’이다. 인용은 그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곳은 바로 ‘자신의 말이나 글’이다. 그밖에 ‘남의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문법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자신까지를 포함한다. 말이나 글도 단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이나 판단까지 포함한다.

2. 직접인용절

남의 말이나 글, 또는 생각을 표현한 문장 그대로를 따오는 것



학습하기

1. 인용절의 두 형식

(1) 직접인용절

- 남의 말이나 글, 또는 생각을 표현한 문장 그대로를 따오는 것
- 표기할 때 큰따옴표로 표시함.
- ‘(이)라고’ 또는 ‘하고’를 사용하여 서술어에 연결함.

(2) 간접인용절

- 남의 말이나 글, 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옮기는 것
-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반영되므로 인용되는 원문에 약간의 변형이 있음
- 표기상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음
- ‘고’를 사용하여 서술어에 연결함(‘이다’의 경우 ‘(이)라고’의 형식으로 사용함)

2. 직접인용절의 특징

(1) ‘(이)라고’와 ‘하고’의 차이

- ㉠ 그 아이가 갑자기 “어머, 여기 꽃이 피었네”라고/하고 외쳤다.
빌딩에 불이 나자 사람들은 “사람 살려.”라고/하고 울부짖으면서 마구 뛰어나왔다.
바로 그때 “짱!” 하고 번개가 쳤다.

- 의성어를 옮길 때는 ‘하고’만 가능함.
- ‘하고’는 동사 ‘하다’에 ‘-고’가 붙은 것이므로 띄어 씀.
- ‘하고’가 붙은 경우 억양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이 인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인용의 제약

- ㉠ 나는 어머니로부터 큰이모께서 북쪽에 살아 계신다고 들었다.
나는 철수가 곧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 ‘듣다’, ‘알다’와 같은 서술어는 직접인용절을 안을 수 없다.

- ㉠ 나는 ‘남편이 곧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영화는 매우 슬프다.’라고 느꼈다.

나는 이 영화가 매우 슬프다고 느꼈다.



나는 ‘우리 아이는 팬찮을 걸.’이라고 믿었다.
나는 우리 아이는 팬찮을 거라고 믿었다.

나는 ‘그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했다.

■ 생각이나 판단, 느낌을 인용절로 나타낼 경우 간접인용절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간접인용절의 특징

(1) 상대높임법 실현의 제약

- ㉠ 민수는 선생님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민수는 선생님께서 자기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2) 간접인용절의 시제는 안은문장의 시제가 아니라 말할 때의 시제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수미는 “바빠.”라고 말했다.
수미는 바쁘다고 말했다.

수미는 “바빴어.”라고 말했다.
수미는 바빴다고 말했다.

수미는 ‘바쁠 거야’라고 말했다.
수미는 바쁠 거라고 말했다.

(3) 안긴문장의 문장 종류별 종결 어미 변형

■ 평서문 : 동사는 ‘-니다/-는다’ 형용사는 ‘-다’, ‘이다’는 ‘(이)라’로 실현된다.

- ㉢ 민수는 “나는 영미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민수는 자기가 영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동생은 의사 선생님에게 “목이 아파요.”라고 말했다.
동생은 의사 선생님에게 목이 아프다고 말했다.

철수는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철수는 나에게 “너는 나쁜놈이야.”라고 말했다.
철수는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 의문문 : ‘-느냐/-(으)냐’로 실현된다.

- 예 나는 그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다.

민수는 집 주인에게 “방이 넓습니까?”라고 물었다.
민수는 집 주인에게 방이 넓느냐고 물었다.

영수는 선생님께 “이거 선생님 가방이에요?”라고 여쭙었다.
영수는 선생님께 그것이 선생님 가방이냐고 여쭙었다.

■ 명령문 : ‘-(으)라’로 실현된다. 부정문일 경우 ‘-지 말라’, ‘주다’의 경우 ‘달라고’로 실현된다.

- 예 대장은 나에게 “부대에 남아 있어!”라고 명령했다.
대장은 나에게 “부대에 남아 있으라고 명령했다.

형은 나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했다.
형은 나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했다.

대장은 나에게 “손대지 마!”라고 말했다.
대장은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점원에게 “포장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점원에게 포장해 달라고 말했다.

■ 청유문 : ‘-자’로 실현된다.

- 예 김 선생님은 나에게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말했다.
김 선생님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다.

■ 감탄문 : ‘-ㄴ다/-는다, -다’로 실현된다.

- 예 민수가 “와, 지금 밖에 눈이 오는구나!”라고 말했다.
민수가 지금 밖에 눈이 온다고 말했다.

민수가 “가을이 왔구나.”라고 말했다.
민수는 가을이 왔다고 말했다.

가 떠날 후/뒤에 많이 슬펐어요.
친구가 떠난 후/뒤에 많이 슬펐어요.



(4) 안은문장의 서술어 ‘말하다, 묻다, 명령하다’의 ‘하다’로의 변형

- ㉠ 동생은 몸이 아프다고 말한다.
- 동생은 몸이 아프다고 한다.
- 동생은 몸이 아프단다.
- 동생은 몸이 아프다고 해(요).
- 동생은 몸이 아프대(요)

- 철수가 나쁜 놈이라고 말한다.
- 철수가 나쁜 놈이라고 한다.
- 철수가 나쁜 놈이란다.
- 철수가 나쁜 놈이라고 해(요).
- 철수가 나쁜 놈이래(요).

김선생님이 나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묻는다.

- 김선생님이 나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한다.
- 김선생님이 나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다.
- 김선생님이 나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해(요).
- 김선생님이 나에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요).

등, ‘-래(요), -재(요)’도 가능하다.

(5). 간접인용절에서 주어나 목적어 생략

- ① 인용하는 사람과 인용절의 주어가 같은 인물일 때
 - ㉠ 나는 친구에게 “나는 철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친구에게 (내가) 철수는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나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그/자기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② 인용하는 사람과 인용절의 주어가 같고, 듣는 사람과 인용절의 목적어가 같은 인물일 때
 - 나는 철수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그/자기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③ 듣는 사람과 인용절의 주어가 같은 인물일 때
 - 의문문과 명령문에서 주어 생략



- ㉠ 나는 민수에게 “너 영희 좋아하니?”라고 물었다.
 → 나는 민수에게 영희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민수에게 “너 빨리 집에 가 봐.”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빨리 집에 가 보라고 말했다.

■ 감탄형과 평서문에서는 주어 생략 불가

- ㉡ 나는 민수에게 “너 합격했어.”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그가 합격했다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합격했다고 말했다.
 나는 민수에게 “너 잘 뛰는구나!”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그가 잘 뛰한다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잘 뛰다고 말했다.

■ 평서문이나 감탄문이라도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서술격조사 구성일 때 주어 생략

- ㉢ 나는 민수에게 “너는 참 착해.”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그가 참 착하다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참 착하다고 말했다.
 나는 민수에게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그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④ 인용하는 사람과 인용절의 목적어가 같은 인물일 때

- ㉣ 나는 민수에게 “너는 나를 미워해.”라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말했다.
 → 나는 민수에게 그가 미워한다고 말했다.
 철수는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었다.
 → 철수는 나에게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 철수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6) 인칭대명사에 대한 표현 바뀜

① 인용하는 사람이 일인칭인 경우

- ㉤ 나는 친구에게 “나는 철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친구에게 (내가) 철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철수에게 “영수가 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영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철수에게 “너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그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철수에게 “영희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영희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너는 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나는 철수에게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② 주어가 삼인칭이며 듣는 사람이 일인칭인 경우

- 예 철수는 나에게 “나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그/자기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그/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너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내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영수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영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그/자기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너는 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나에게 내가 그/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③ 주어와 듣는 사람 모두 삼인칭 경우

- 예 철수는 영수에게 “나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그/자기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나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그/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너는 영희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그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철수는 영수에게 영희가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④ 간접인용절에서 인칭 변화

- 전체 주어가 일인칭인 경우 간접인용절의 인칭
 - 일인칭 → 일인칭 그대로
 - 이인칭 → 삼인칭으로 바뀜
 - 고유명사 → 고유명사 그대로
- 전체 주어가 삼인칭이고 듣는 사람이 일인칭인 경우 간접인용절의 인칭 변화
 - 일인칭 → 삼인칭
 - 이인칭 → 일인칭



고유명사 → 고유명사 그대로

■ 전체 주어가 삼인칭이고 듣는 사람도 삼인칭인 경우 간접인용절의 인칭 변화

일인칭 → 삼인칭

이인칭 → 삼인칭

제 18차시

한국어의 시제 1

개요

* 주제
한국어의 시제 1

* 학습 목표
① 시간과 시제의 뜻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② 한국어의 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다.

* 학습 내용
① 시제 표시의 방법
② 시제 표시가 갖는 다양한 의미

주요용어

■ 시제 :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때를 시간 선상의 위치에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과거·현재·미래가 있으며,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 시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 시제가 있다. 발화시는 문장을 말하는 그 시점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건이 발화시와 동시에 일어났다면 그 사건은 현재이고 시제도 현재로 표시된다. 그러나 발화시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면 과거 시제 표시가 붙는다. 사건시를 기준으로 할 때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때가 차이가 있는데, 사건시가 기준이 되는 때는 복문에서이다.



학습하기

1. 시제의 개념

예 수미 : 지금 뭘 해?

영희 : 책을 읽어.

수미 : 어제 뭘 했어?

영희 : 집에서 책을 읽었어.

■ 시제란 사건이나 행위가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 같은 문장 속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나 행위가 나타나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시간 상의 앞뒤 관계가 어떠한지를 문법 형태로 나타낸 것

■ 한국어의 시제 체계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으로 논의됨.

2. 시제 결정의 기준

■ 시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문장을 말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문장 안에 다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일 수도 있다.

예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우리 학교는 지금 공사를 한다.

나는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이다.

나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올 사람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

파티에 온 사람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 현재시제

(1) 종결형-평서문의 현재시제

■ 듣는 사람을 높이는 종결형의 현재시제

예 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노래를 정말 잘하시군요.

■ 격식을 차려야 하는 평서문의 현재시제

예 수미는 지금 책을 읽습니다.

산이 아주 높습니다.

나는 지금 텔레비전을 봅니다.

나는 서울에 삽니다.



요즘 저는 매우 바쁩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평서문의 현재시제

저는 기숙사에 살아요.

저는 책을 읽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운동해요.(하+여요)

■ 듣는 사람을 높이는 의미가 없는 글에서 사용되는 평서문의 시제

수미는 지금 책을 읽는다.

나는 지금 텔레비전을 본다.

나는 서울에 산다.

요즘 나는 매우 바쁘다.

내 동생은 고등학생이다.

■ 한국어의 현재시제는 과거시제나 미래시제 형태소가 나타나는 자리에 아무런 형태소가 실현되지 않는다.

(2) 관형사형의 현재시제

예 저기서 책을 읽는 사람이 수미이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쁜 아이들이 아주 많다.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나는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를 좋아한다.

■ ‘-는(동사), -은/-ㄴ(형용사, 서술격조사)’

(3) 현재시제의 다른 기능

■ 보편적인 진리, 습관적인 반복, 분명히 미래에 발생할 일

예 지구는 둥글다.

나는 다음 주에 부산에 간다.

3. 과거시제

(1) 종결형-평서문의 현재시제

■ ‘-았-/-었-/-였-’으로 과거시제 표시

예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어제는 날씨가 흐렸다.

나는 전에 회사원이었다.

지난주에는 일이 많아 무척 피곤했다.



우리 가족은 (전에 잠깐) 부산에 살았었다.

(2) 연결형의 과거시제

■ 과거시제 표시는 넣거나 빼어서 말이 성립하는가 보자.

㉠ 어제 친구를 만났지만 이야기를 오래 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으므로 오래 같이 있지 못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나는 어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났다.

나는 책을 읽었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셨다.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밥을 먹을 때 전화가 왔다. / 밥을 다 먹었을 때 전화가 왔다.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 / 학교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다.

(3) 관형사형의 과거시제

■ ‘-ㄴ/-은’으로 과거시제 표시

㉠ 어제 만난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다.(ㄴ)

저것이 내가 만든 작품이다.

어제 읽은 책이 무척 재미있었다.

(4) 과거 회상 ‘-더’-

■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표현할 때 나타난다.

■ 말하는 사람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상황대로 회상하여 말하는 것.

① 종결형의 형태

■ -던데(요), -더라, -더군(요), -데(요), -더니, -던데, -있던데요,

-있더라, -있더군요, -있데(요), -있더니, -있던데.

■ ‘-있더-’는 말하는 사람이 경험할 과거 당시에 이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 ‘-더니’는 주어가 이인칭, 삼인칭인 문장에만 사용하는 반면, ‘-있더니’는 주어가 일인칭인 문장에만 사용한다.

■ ‘-더라’는 일인칭 주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화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행위이지만 ‘-더’를 사용한다.



- ① 마이클이 한국어를 잘하던데요.
마이클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에 붙었다.
벌써 회의 준비를 다 끝냈더라.
수미가 오던데요. / 수미가 왔던데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에 붙었다.
어제는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일찍 학교에 와 있더라.
내가 노래를 잘하더라.
내가 길에 누워 있더라.
(술에서 깨어나 보니) 내가 길에 누워 있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낯선 곳을 걷고 있더라.
(신분증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수첩 안에 넣어 두었더라.
(옛날 사진을 보다 보니,) 우리가 꽤 친했더라.

② 관형사형에 사용된‘-던-’ : -던

- 과거 회상의 의미와 함께 과거의 행위나 상태가 중단됨을 의미한다.
- ① 여기가 내가 전에 살던 집이다. / 여기가 내가 산 집이다.
조금 전까지 많던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다.
초등학생이던 선우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
- 과거 회상의 의미와 함께 행위나 상태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의미
- ① 이것이 내가 어릴 때 쓰던 책상이다.
이것이 내가 어릴 때 쓴 책상이다.
여기가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이다.
- 일회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던’이 쓰이지 않는다.
- ① 감기에 걸리던 사람이 저예요. / 감기에 걸린 사람이 저예요.
이것이 어제 사던 책이다. / 이것이 어제 산 책이다.
이곳이 내가 결혼하던 곳이다. / 이곳이 내가 결혼한 곳이다.
-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현재에도 남아 있음을 알 때 사용하기도 한다.
- ① 내가 먹던 사과 어디 갔니?
내가 읽던 신문 누가 가져갔어?
- ‘-었던’은 행위가 완료된 사실이나 과거에 반복으로 발생한 일을 회상해 나타낼 때 사용한다.
- ① 이 제품이 전에 내가 샀던 것이다.
대학 다닐 때 자주 만났던(만나고 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5) 과거시제의 다른 의미

-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확신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 한 동작이 완료된 후 그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
- ‘났다, 멀다, 늙다, (몸이)마르다, (살이)찌다’ 등의 형용사에 붙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 ㉠ **㉠** 넌 이제 형에게 죽었다.
나 지금 버스에 탔어.
철수는 오늘 까만 양복을 입었다.

4. 미래시제

(1) 미래시제의 형태 : -겠-, -(으)리-, -(으)르 것이-, -(으)르게

- 미래시제 형태
- ㉠ **㉠** 잠시 후에 1시가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이다.
가 일은 내가 할게.
- 제약: ‘-겠-’과 ‘-(으)르 것이-’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사용 가능하나 ‘-(으)르게’는 평서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 ㉠ **㉠** 선생님 :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학 생 :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 이 일을 누가 할 거예요?
학 생 : 제가 할 거예요.
선생님 : 이 일을 누가 할게요?
학 생 : 제가 한번 해 볼게요.

(2) 미래시제의 다른 의미

-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
- ㉠ **㉠** 그 목표를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그 목표를 형이 꼭 이루겠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갈게요.
그 모임에 네가 갈게.
- 추측을 나타냄.
- ㉠ **㉠** 오후에 영화보러 가겠다.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얻겠다.
구름이 많이 낀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
설악산엔 지금쯤 눈이 내리겠다.



세 시에 출발했으니 지금쯤 도착했겠다.
 날씨가 나빠서 고생을 많이 했겠다.
 지금쯤 모두들 집에 모여 있을 것이다.
 모두들 떠나 이제 고향엔 아무도 없으리라.

(3) 관형사형의 미래시제

- 형태는 동사 어간 뒤에 ‘-(으)ㄹ’이 붙는다.
- ㉠ 내일 여행을 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전화를 걸 곳이 많아요.
 나는 주말에 입을 옷을 다려 놓았다.
- 미래시제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만 할 때도 있다.
- ㉡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시내에 갈 때 뭘 타고 가야 합니까?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시내에 갈 때 뭘 타고 갔어요?

5. 한국어의 상

(1) 진행상 : 사건의 진행

- ㉠ 수미와 진수가 산책하고 있다.
 일이 다 끝나 간다.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본다.

(2) 완료상 :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끝나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냄

- ㉡ 창문이 활짝 열려 있다.
 진수는 편지를 읽고 찢어 버렸다.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김철진 박사가 새로운 살 품종을 개발해 냈다.
 부탁하신 옷을 모두 다려 놓았습니다.
 동생은 내 얘기를 듣고서 얼굴이 환해졌다.

(3) 예정상 : 어떤 동작이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

- ㉢ 진수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이제 진달래가 피려고 한다.

개요

* 주제

한국어의 높임 표현

* 학습 목표

- ① 높임법의 뜻과 다양한 높임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높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높임법의 뜻, 주체높임법, 상대높임법, 낮춤의 방법
- ② 높임법을 사용한 높임의 방법

주요용어

1. 압존법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서 그 문장의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語法)을 말한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압존법의 좋은 예이다.

2. 객체높임법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대우하여 표현하는 높임법이다.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은 문장 성분으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객체높임법이 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학습하기

1. 높임법의 성립

(1) 대화 상황과 문장 성분

(2) 높임 표현의 결정 요인

- 나이의 많고 적음
-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
- 대화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친분 정도
- 말을 주고받는 상황의 공식성에 대한 정도

(3) 높이는 방법

- 서술어에 ‘-(으)시-’, ‘-하나다/-습니다’를 붙이는 문법적 방법
- 어휘를 바꾸는 어휘적인 방법
- 조사를 바꾸는 방법

2. 주체높임법

(1) 문장의 주어를 높임

- 말하는 사람의 주체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표현됨.
- 주어는 언제나 이인칭이나 삼인칭
- 조사를 바꾸고, ‘-(으)시-’를 붙임.
- 조사 바꾸기는 필수적이지는 으나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꼭 붙여야 함.

㉠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뭘 하셨어요?

어제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으십니다.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칭찬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다니신다.

(2) 여러 개의 ‘-(으)시-’가 나타날 때

㉡ 우리 아버지는 무척 자상하셔서 주말에는 우리와 함께 음식을 만드시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신다.

우리 아버지는 무척 자상해서 주말에는 우리와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외식을 하러 나가신다.



우리 아버지는 자상하신 반면, 어머니는 무뚝뚝한 편입니다.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십니다.

(3) 주체에 대한 간접 높임

- 높여야 할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 또는 소유물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 주어로 올 때 나타나는 높임
- 통사 상으로는 사람을 높이고 있지 않고 사물이나 신체의 일부를 높이는 표현이지만 의미로는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함.
- ㉠ 우리 사장님께서서는 마음이 무척 넓으시다.
우리 사장님께서서는 마음이 무척 넓다.
선생님, 넥타이가 잘 어울리십니다.
선생님,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 ‘있으시다’와 ‘계시다’, ‘아프시다’와 ‘편찮으시다’
- ㉠ 선생님께(서)는 자동차가 있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차가 계십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있으십니까?
할아버지, 손자가 계십니까?
아버지, 팔이 아프세요?
아버지, 팔이 편찮으세요?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4) 주체에 대한 높임의 상황적 유연성

- 대화 참여자의 비교 : 화자, 청자, 주체
- 모든 대화 참여자를 비교해서 말을 해야 함.
- 가정에서는 압존법(주체가 화자보다 높지만 청자보다 낮아서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것)이 예절에 맞지만 직장은 아니다.
- ㉠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 ㉠ 사장님, 김 과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 2011.) 중에서

듣는 사람이 지칭 대상보다윗사람이거나 듣는 사람이 회사 밖의 사람인 경우에 ‘총무과장이 이 일을 했습니다.’처럼 말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에서의 입존법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는 거리가 멀다.

윗사람 앞에서 그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낮추는 것이 가족 간이나 사제 간처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쓰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그보다 윗사람에게 지칭하는 경우, ‘총무과장님께서’는 곤란하여도, ‘총무과장님이’라고 하고,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어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다.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에서 지칭어와 경어법을 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쓰는데 지칭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상대에게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지칭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칭 대상이 동료이거나 아래 직원인 경우에는 ‘OOO 씨가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처럼 주체를 높이는 ‘-시-’를 넣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직장 사람들에 관해 말할 때에는 ‘-시-’를 넣어 ‘김 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처럼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체높임법이 흐트러지기도 한다.

㉠ 후배 : 언니, 어디 여행갔다가 오셨어요?

선배 : 어제 왔어.

후배 : 여행 재미있으셨어요?

선배 : 응, 아주 재미있었어.

후배 : 어디어디 갔었어요?

선배 : 이탈리아하고 스위스에 갔었어.

후배 : 베네치아에도 갔어요?

선배 : 물론 갔지. 곤돌라도 탔어.

후배 : 와, 좋으셨겠어요.

3. 상대높임법

(1) 문장 반화를 듣고 있는 이를 높임

■ 듣는 이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음.

■ 듣는 이가 나타날 때 그는 독립어로 나타남.

㉠ 선생님,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철수야,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 상대높임법은 문장 끝의 서술어에 종결어미가 붙음으로써 성립한다.



- 상대높임법의 분류 :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합쇼체, 하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아주높임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합니다.
예사높임	하오	하오	하(시)호	합시다	하오
예사낮춤	하네	하나/하는가	하게	하세	하네
아주낮춤	한다	하느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

- 아주높임 : 처음 만난 사람, 손님, 회의, 연설, 발표, 토론, 보고 등 공식적인 자리
- 예사높임, 예사낮춤 : 나이가 많은 친구 또는 아는 사이, 나이가 많은 비슷한 또래끼리, 스승이 제자에게,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 아주낮춤 : 친구나 어린 사람을 아주 낮춰서 말할 때.
=> 격식체 : 나이나 직업, 지위 등의 주어진 사회적 규범에 의해 어느 특정한 등급의 어미를 써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언어 예법이 아님.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 해체 : ‘-아/-어, -지, -는지, -(으)니까, -(는)군, -네, -나, -는가’를 사용하는 비격식적인 안 높임(두루낮춤). 주관적이고 부드러운 사적인 표현.
- 해요체 : ‘-아/-어, -지, -는지, -(으)니까, -(는)군, -네, -나, -는가’에 ‘요’를 더하여 사용하는 비격식적인 높임(두루높임)
=> 비격식체 : 대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고 친근하고 융통성 있는 정감있는 태도를 나타내고자 할때 사용하는 높임. 이 말은 선택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음.

(2) 격식체 ‘-(으)십시오’

-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권유할 때 사용
- 개별적으로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없음.
- 윗사람에게는 ‘-(으)시지요, -(으)시겠습니까’와 같은 완곡 표현을 써야 한다.

- ㉠ 여러분, 우리 모두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사장님, 함께 이 자료를 발표합시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여기에서 먹읍시다.
사장님, 회의하러 가지지요./가지겠습니까?

(3) 하라체

- ‘해라체’와 달리 아주낮춤의 뜻이 없음.
- 격식적인 선언이나 군대에서의 명령에서 일부 사용



- 명령을 제외하고는 ‘해라체’와 동일한 종결어미 형태.
- 하라체의 평서형과 의문형
 - 공부한다/먹는다공부하나/먹는가?
 - 넓다. 넓은가?
 - 대학생이다 대학생인가?
 - 입학했다 입학했나/했는가?
 - 입학할 것이다 입학할 것인가/입학하겠나/입학하겠는가
- 하라체의 명령형과 청유형
 - 문장을 고르라
 - 미래를 창조하자.

(4) 상대높임법 등급의 혼용

- 격식과 비격식의 혼용
- 예 이 옷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버지 : 저야 뭐 잘 지내지요.
 이 옷 : 집에 곧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 아, 네. 다음 달에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합니다.
 이 옷 : 정말 축하합니다. 청첩장 꼭 보내주세요.
 아버지 :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꼭 오십시오.
- 등급의 혼용
- 예 선생님 : 바쁘지요?
 선생님2 : 학기말이라 성적 처리도 해야 하고 너무 바빠요.
 선생님 : 나도 그래. 너무 바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선생님2 :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 우리 바쁜 것 지나면 만나서 얘기 좀 해요.

(5) 상대높임법의 호응관계

- 질문한 사람에 대한 대답‘아니요, 아니; 네, 응’
- 예 저는(저희)/나(우리)는 학생입니다.
 나는 학생이야.
 저는 학생이야.
 너도 학생입니까?
 수미 씨는 학생입니까?
 과장님은 내일 뭐 하실 겁니까?
 너도 학생이야?



■ 이인칭대명사‘당신’

- ㉠ 여보, 당신은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당신이 뭘데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래?

(5) 상대높임법의 변용

- 친한 사이에서는‘해’와‘해라’를 번갈아 쓸 수 있다.
■ 친한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해’와 ‘해요’를 번갈아 쓸 수 있다.
■ 이 외에도 친분 관계에 따라 다양한 변용이 있을 수 있다.
㉠ 언니, 이 영화 봤어요?
언니, 이 영화 봤어?
수미야, 이 책 받아.
수미야, 이 책 받아라.
언니, 이 책 받아.
언니 이 책 받아라.

4.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 표현

■ 주체를 높이는 어휘

- ㉠ 있다, 계시다; 먹다, 잡수시다, 드시다; 마시다, 드시다;
아프다, 편찮으시다; 자다, 주무시다; 죽다, 돌아가시다;
말하다, 말씀하시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 문장의 목적어나 대상을 높이는 어휘

- ㉠ 주다, 드리다;
데리다, 모시다;
만나다, 뵙다;
물다, 여쭙다;

■ 다양한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

밥, 진지; 이름, 성함; 나이, 연세; 이, 치아; 집, 댁; 아내, 부인; 생일, 생신; 선생, 선생님;
과장, 과장님; 말, 말씀;



- 낮춤을 나타내는 어휘
말, 말씀; 나, 저; 우리, 저희
- 다양한 높임 표현
- ㉠ 이름이 무엇입니까?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두 종류의 ‘말씀’
- ㉠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요 ...

* 주제

한국어의 부정 표현

* 학습 목표

- ① 부정법의 개념과 종류를 체계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② 부정문의 문장 제약과 의미 해석상의 모호성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 ① 부정법의 개념, 부정법의 종류, 이중부정법
- ② 부정법의 통사 제약, 부정문의 의미

주요용어

1. 못부정문

‘못’, ‘-지 못하다’와 같이 ‘못’에 의해서 성립하는 부정문을 못부정문이라고 부른다. 주로 주체의 무능력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다.

2. 안부정문

‘-이/가 아니다’, ‘-지 아니하다’와 같이 ‘안’에 의해서 성립하는 부정문을 말한다. 주로 단순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학습하기

1. 부정법의 성립

(1) 문법적 성질

-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쓰여서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부정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
- 긍정문을 이루는 문장성분들의 순서를 그대로 두고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

(2) 부정문의 종류

- ‘안’ 부정문 : 안(짧은 부정), -지 않다(긴 부정)
- ‘못’ 부정문 : 못(짧은 부정), -지 못하다(긴 부정)
- ‘말다’ 부정문 : -지 말다

2. ‘안’ 부정법

- ‘이다’, 동사, 형용사에 모두 가능하다.
- 주어의 속성이나 의지에 대한 것이다.
-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식에만 붙는다.
- ‘-지 않다’가 붙은 어간이 동사이면 동사처럼 활용하고 형용사이면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예 저 건물은 병원이다.

저 건물은 병원이 아니다.

민수가 사과를 먹는다.

민수가 사과를 안 먹는다.

민수가 사과를 먹지 않는다.

가을 하늘이 높다.

가을 하늘이 안 높다.

가을 하늘이 높지 않다.

■ 어떤 파생어와 합성어로 된 서술어는 ‘안’과 결합이 어색하다.

예 나는 신촌으로 이사했다.

나는 신촌으로 안 이사했다./나는 신촌으로 이사를 안 했다.

나는 신촌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동해 바다는 새파랗다.

동해 바다는 안 새파랗다.



동해 바다는 새파랗지 않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안 아름답다.
 그녀는 아름답지 않다.
 마이클이 그 일을 마무리지었다.
 마이클이 그 일을 안 마무리지었다.
 마이클이 그 일을 마무리짓지 않았다.

■ 긴 부정문의 경우 시제는 ‘-지 않다’에 붙는다.

- 예) 지난주는 날씨가 추웠다.
 지난주는 날씨가 추웠지 않다.
 지난주는 날씨가 춥지 않았다.

내일은 영희가 오겠지?
 내일은 영희가 오겠지 않지?
 내일은 영희가 오지 않겠지?

■ ‘-지 않다’에 붙지 않을 경우 그것은 확인의문이다.

- 예) 지난주는 춥지 않았니?
 지난주는 추웠지 않니?
 너희들은 그때 이미 다 먹지 않았니?
 너희들은 그때 이미 다 먹었지 않니?

■ 주체를 높이는 ‘-시-’는 어디든 붙는다.

- 예)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다.

■ 부정의 범위에 따른 부정문의 의미

- 예) 요시다는 컴퓨터를 안 샀습니다.
 요시다는 컴퓨터를 사지 않았습니니다.
 - 컴퓨터를 산 사람은 요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 요시다가 산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 요시다가 한 행위는 컴퓨터를 사는 것과는 무관한 행위였습니다.



- ㉠ 손님들이 다 안 갔다. / 다 가지 않았다.
 - 손님이 한 사람도 가지 않았다.
 - 손님이 몇 사람은 가고 일부는 남아 있다.
 - (손님들이 다는 안 갔다. / 손님들이 다 가지는 않았다.)
- ㉡ 학생이 모두 집에 가지 않았다.
 - 학생이 집에 모두 가지 않았다.
 - 모든 학생이 집에 가지 않았다.
 - 학생이 일부는 집에 갔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 ㉢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 단순한 사실의 부정이다.

영이는 안 예쁘다. / 예쁘지 않다.
 - 이것은 말하는 이의 주관적 생각이다.

영수는 학교에 안 갔다. / 가지 않았다.
 - 영수의 학교 간 행위에 대한 단순한 부정일 수도 있고, 영수의 의지를 나타낸 표현일 수도 있다.

3. ‘못’ 부정법

-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 ‘못’이나 ‘-지 못하다’를 써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다.
- 평서문과 의문문의 형식에만 붙는다.
-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 요인에 관계된 부정이다.
- ㉠ 이젠 더 이상 못 견뎌어요.
 - 비가 와서 더 못가요.
 - 영이는 못 예쁘다.
 - 이것은 못 책이다.
 - 오늘 날씨는 춥지 못해요.
- 말하는 사람의 기대에 관계된 형용사일 경우 ‘못’이 가능하다.
- 이 경우 ‘못’은 능력이 아니라 미달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 ㉡ 아이가 똑똑하지 못하다.
 -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
 - 과일이 신선하지 못하다.
-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있다.
- 시제는 ‘-지 못하다’에 붙여야 한다.



- ㉠ 영이는 사과를 먹었다.
 영이는 사과를 먹었지 못하다.
 영이는 사과를 먹지 못했다.
 내일은 철수가 집에 가겠다.
 내일은 철수가 집에 가겠지 못하다.
 내일은 철수가 집에 가지 못하겠다.
- 주체 높임의 ‘-(으)시-’는 ‘-지 못하다’뿐만 아니라 앞의 서술어에도 붙을 수 있다.
- ㉡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출근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출근하시지 못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출근하지시 못하셨다.

4. ‘말다’ 부정법

- 서술어에 ‘-지 말다’를 붙여 만든다.
 ■ 명령형과 청유형에만 쓰인다.
 ■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지를 담고 있다.
- ㉢ 텔레비전을 보아라.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오늘은 농구를 하자.
 오늘은 농구를 하지 말자.
 영화는 예쁘지 마라.
 우리 도둑이지 말자.
- 시제 ‘-았-/-었-/-였-, -겠-, -더-’가 붙어 있으면 ‘-지 말다’가 붙지 못한다.
- ㉣ 영이야, 사과를 먹었지 마라.
 영이야, 사과를 먹겠지 마라.
 영이야, 사과를 먹더지 마라.

5. 부정문의 다양한 제약

(1) 감탄문의 부정

- 감탄문은 ‘안’ 부정문의 짧은 부정과 긴 부정, ‘못’ 부정문의 긴 부정이 가능하나 ‘못’ 부정문의 짧은 부정은 불가능하다.
- ㉤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오늘 날씨가 안 좋구나.
 오늘 날씨가 좋지 않구나.



오늘 날씨가 못 좋구나.
오늘 날씨가 좋지 못하구나.

(2) '있다', '알다'의 부정

- ㉠ 나는 돈이 있다.
나는 돈이 안/못 있다.
나는 돈이 있지 않다/못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안/못 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지 않는다/알지 못한다.
나는 그 말의 뜻을 모른다.

할머니가 집에 계신다.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
할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는다.

(3) '전혀, 결코, 아무도, 추호도, 조금도, 털끝만큼도'는 언제나 부정 표현에만 쓰인다.(부정법 외의 부정 의미 포함)

- ㉠ 저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떠난 사람은 조금도 생각하지 마라.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철수는 결코 정답을 모를 것이다.

(4) '여간, 이만저만'은 부정과 호응하여 긍정을 의미한다.

- ㉠ 요즘 여간 바쁘지 않았어요.
그게 이만저만 비싸지 않아요.

(5) 부정의문문에 대답하기

- 한국, 중국, 일본은 부정의문문 문장에 자체에 대한 긍정인가 부정인가로 답변한다.
- ㉠ 밥 안/못 먹었니?
응, 안/못 먹었어.
아니, 먹었어.



6. 이중부정법

- 부정 표현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
- 강한 긍정 표현이 됨.
- 부정어 '없다'가 이중부정에 자주 쓰임.

예 이번에는 네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네가 반드시 가야 한다.
 사람은 양심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양심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못'부정은 이중 부정이 불가능하다. 이중 부정이 아니라 다른 뜻이 된다.

예 영이는 학교에 못 가지 못했다.
 영이는 학교에 안 가지 못했다.
 영이는 학교에 못 가지 않았다.
 영이는 학교에 안 가지 않았다.

제21차시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 1

개요 ...

- * 주제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 1
- * 학습 목표
 - ① 사동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사동법 외의 사동 표현을 일상생활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 * 학습 내용
 - ① 사동법의 뜻, 사동법의 종류, 사동문의 의미
 - ② 다양한 사동 표현

주요용어

1. 사동
주체가 제3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사동이라 한다. 또는 이런 동사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2. 사동법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문법적 방법이다. 사동사에 의한 방법과 주동사에 어미 '-게'를 붙이고 보조 동사 '하다'를 쓰는 방법이 있다. 대개 대응하는 주동문이 존재하며, 주동문의 주어는 주격 조사 대신 '-에게', '-한테'가 붙어 새로운 문장 성분이 된다.



학습하기

1. 사동법

(1) 사동의 뜻

사람이나 동물, 사물이 스스로 움직여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이나 동물, 사물에 움직임이 생기게 하거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

(2) 사동법의 뜻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문법적인 방법을 사동법이라고 한다.

(3) 사동법의 종류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이 있다.

장형 사동은 ‘-게’에 보조동사 ‘하다’가 붙은 사동이다.

단형 사동은 ‘-이-, -히-’와 같은 접사가 붙은 사동이다.

2. 접미 사동 : -이-, -히-, -리-, -기-, -우-, -구-, -추-

(1) 접미사에 의한 사동문 만들기

①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아기가 운다. → 동생이 아기를 울린다.

②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길이 넓다. → 아저씨들이 길을 넓혔다.

③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아이가 과일을 먹는다. → 엄마가 아이에게/를 과일을 먹인다.

(2) 자동사가 사동사가 되는 경우

- 끓이다, 녹이다, 속이다, 죽이다

- 눅히다, 앉히다, 익히다

- 날리다, 돌리다, 살리다, 얼리다, 울리다

- 남기다, 웃기다, 숨기다

- 깨우다, 비우다

(3) 타동사가 사동사가 되는 경우

- 먹이다, 보이다

- 엮히다, 입히다, 읽히다, 잡히다

- 알리다, 물리다



- 감기다, 뜯기다, 맡기다, 벗기다, 안기다
- 지우다

(4) 형용사가 사동사가 되는 경우

- 높이다
- 넓히다, 좁히다, 밝히다
- 달구다
- 낮추다, 늦추다

(5) 사동사로 파생될 수 없는 말

- 수여 동사 : 주다, 받다, 드리다, 바치다
- 수혜 동사 : 얻다, 받다, 잃다, 돕다
- 대칭 동사 : 만나다, 다투다, 싸우다
- 경험 동사 : 배우다, 느끼다, 바라다
- 어간모음이 'ㅣ'로 끝나는 동사 : 이기다, 던지다, 지키다, 때리다
- '하다'가 붙는 동사 : 노래하다, 도착하다, 출발하다

㉠ 학생이 집에 간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집에 가이신다.

동생이 여자 친구를 만났다.

내가 동생에게 여자 친구를 만나이었다.

(6) 사동 접사가 두 개 겹친 경우

- 서다 → 세우다(서+ㅣ우)
- 자다 → 재우다(자+ㅣ우)
- 타다 → 태우다(타+ㅣ우)
- 차다 → 채우다(차+ㅣ우)
- 크다 → 키우다(크+ㅣ우)

(7) 특이한 사동접미사

■ 대응하는 어휘가 하나뿐이므로 어휘화한 것으로 보고 공시적 파생과정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 없다 → 없애다
- 젓다 → 적시다
- 일다 → 일으키다
- 돌다 → 돌이키다



3. 주동문이 없는 접미 사동문

■ 이 경우 사동은 사동의 의미 특성, 즉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타동사로서의 의미 특성만을 드러내고 있다.

예 선생님 **이** 종을 울렸다. ← 종이 울었다.

그 증인은 끝까지 진실을 숨겼다. ← 끝까지 진실이 숨었다.

박세리는 이름을 날렸다. ← 이름이 날았다.

내 친구는 돼지를 먹인다. ← 돼지가? 먹는다.

4. '-게 하다'사동법

(1) '-게 하다'사동의 특징

■ 어미 '-게'와 보조동사 '하다'의 결합이다.

■ '하다'대신 '만들다'를 쓸 수 있다.

■ 접미사동법보다 가능한 동사의 범위가 넓다.

예 학생들이 집에 갔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이/학생들을 집에 가이였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이/학생들을 집에 가게 하셨다.

동생이 여자 친구를 만났다.

내가 동생에게 여자 친구를 만나이였다.

내가 동생에게/동생을/동생이 여자 친구를 만나게 하였다.

(2) '-게 하다'사동문 만들기

① 서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예 아기가 잔다. → 어머니가 아기를/아기가 자게 한다.

②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예 길이 넓다. → 인부들이 길을/길이 넓게/넓어지게 했다.

순이의 머리가 예쁘다.

→ 아주머니는 순이의 머리를/머리가 예쁘게/예뻐지게 했다.

③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예 아이가 과일을 먹는다.

→ 엄마는 아이에게/아이들/아이가 과일을 먹게 한다.

④ 서술어가 '명사-이다'인 경우

예 나는 그를 가수이게 했다.

나는 그를 가수가 되게 했다.



⑤ 시제의 결합

- 예 영이가 동생에게 밥을 먹었게 하다.
영이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내가 철수를 집에 가겠게 하다.
내가 철수는 집에 가게 하겠다.
철수는 영이가 집에 가더게 하라.
철수는 영이가 집에 가게 하더라.

⑥ 주체 높임‘-시-’의 결합

- 접미 사동이 주어만 높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게 하다’사동은 주어와 시김을 받는 사람 모두 높일 수 있다.
- 예 선생님께서는 할머니를 자리에 앉히시었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시장에 가게 하셨습니다.
누나가 어머니를 시장에 가시게 하였다.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시장에 가시게 하셨습니다.

5. 사동문의 의미

(1) 의미의 두 유형

- 직접 사동 :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동작에 직접 관여하여 사동 행위를 실행하는 것
- 간접 사동 :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기만 할 뿐 그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2) 접미 사동의 의미

- 예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 직접 사동 의미 : 어머니가 직접 동생에게 옷을 입힘.
- 간접 사동 의미 : 동생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어머니가 시킴.

-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셨다.
- 직접 사동 의미 : 어머니가 직접 아이에게 밥을 먹임.
- 간접 사동 의미 :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도록 어머니가 시키거나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줌.

- 예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 직접 사동 의미 : 없음.
- 간접 사동 의미 : 선생님께서 철수가 책을 읽도록 시킴.

- 예 영수가 나를 옷졌다.



- 직접 사동 의미 : 없음.
- 간접 사동 의미 : 영수가 재미있는 행동으로 나를 웃게 만들.

(3) ‘-게 하다’사동의 의미

㉠ 어머니가 동생에게/동생을/동생이 옷을 입게 하셨다.

- 직접 사동 의미 : 없음
- 간접 사동 의미 : 어머니가 동생 스스로 옷을 입도록 시킴

㉡ 어머니가 아이에게/아이를/아이가 밥을 먹게 하셨다.

- 직접 사동 의미 : 없음
- 어머니가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도록 시키거나 여건을 만들어 줌.

㉢ 철수가 영화를 기쁘게 한다.

- 직접 사동 의미 : 철수의 말이나 행동으로 영화를 기쁘게 함.
- 간접 사동 의미 : 철수가 영화가 기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줌.

㉣ 영수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

- 직접 사동 의미 : 영수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놀라게 함.
- 간접 사동 의미 : 영수가 우리가 놀라게 여건을 만들.

(4) 수식의 범위에 따른 두 사동의 의미 차이

■ 접미 사동문과 ‘-게 하다’사동문은 부사어의 수식 범위가 다른 데서 의미 차이를 보인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다.

나는 철수에게 그 책을 못 읽혔다.

나는 철수에게 그 책을 못 읽게 했다.

6. 사동을 표현하는 어휘적 사동: ‘시키다’사동

■ ‘하다’가 결합되어 있는 동사에 대해서는 쓰인다.

■ ‘똑똑하다, 암전하다, 정직하다’ 등의 형용사는 사동표현이 불가능하다.

■ 앞말과의 사이에 ‘을/를’이나 부사어를 넣을 수 있다.

㉠ 김 선생님이 학생들을 발표시켰다.

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을} 발표를 시켰다.



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을} 발표를 안 시켰다.

■ 일반적으로 앞말과 분리될 수 있는‘하다’에 대한 사동 표현이다.

예 부모님이 딸에게 감동을 했다.

딸이 부모님을 감동을 시켰다.

■ ‘-게 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연습하게 한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연습시킨다.

■ ‘밥하다, 떡하다, 머리하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의‘하다’파생은‘시키다’를 써서 사동 표현을 만들지 못한다.

예 어머니가 {밥을/떡을} 하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밥을/떡을} 시켰다.